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제3124호 www.metroseoul.co.kr

주행 중 바퀴이탈 쌍용차 리콜

2005~2010 제작 판매한 렉스턴 등 4개차종 대상 볼조인트 비틀림·파손돼

바퀴 이탈 사고를 겪은 쌍용차 렉스턴 2. /출처=MBC 불만제로 방송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가 잇달았던 쌍용자동차의 4개 차종이 결국 강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05년 6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7일 사이에 제작된 렉스턴, 카이런,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등 4개 차종 총 11만2920대다.

이번 리콜은 볼조인트(Ball Joint)가 이탈되거나 파손되는 결함이 발견되어 정상적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바퀴 비틀림 또는 바퀴 잠김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본지는 올해 4월 4일자 보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당시 쌍용차 홍보팀 관계자는 "내부에서 점검한 바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쌍용차는 2012년 7월부터 렉스턴2의 볼조인트 설계를 바꿨는데, 이 부위는 바퀴가 주저앉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부품이다. 따라서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쌍용차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있다. 국토부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결함내용을 접수한 박 모 씨는 "내 차는 주행거리가 4만km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마모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된 부품을 장착하려 했더니 문제없는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불법개조가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회오리징'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블로거는 "지난 2013년 8월에 뉴 카이런을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뒷바퀴가 주저앉아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를 겪었다"면서 "사고를 조사한 쌍용차 측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샤프트가 부러진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에도 코란도 투리스모와 코란도 스포츠의 변속기 결함(P단에서 변속기 풀림 현상)에 대해 "문제 없다"고 밝혔다가 변속기 결함으로 밝혀져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쌍용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전·후륜 좌우 볼조인트 교환 수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삼성·LG '세탁기 파손 논란' 어디까지…

검찰, '소환 불응' LG전자 본사 압수수색

SAMSUNG 삼성전자

'삼성 세탁기 파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초반 단순 재물 손괴로 보던 사건이 점차 확대되더니 지난 12일 LG전자가 삼성전자를 맞고소한 데 이어 26일에는 검찰이 LG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6일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 LG전자 공장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세탁기 파손관련 핵심 관련자들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수사상 최소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조성진 LG전자 사장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LG전자는 압수수색 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글로벌 기업인 당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LG전자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 사장에게 검찰이 조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수차례 불응한 것이 압수수색을 불러온 것 같다"며 "LG전자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판단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이번 사태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두 업체의 감정싸움 확대로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예정된 소비자 가전쇼(CES) 2015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인터넷쇼핑몰 결제 본인인증 사라진다

29일부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만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문자메시지(SMS)나 전화자동응답장치(ARS) 등으로 추가 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카드를 비롯해 대부분의 카드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시 인증 절차가 필요없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원클릭' 서비스를 29일부터 운영한다.

신한카드는 모든 쇼핑몰에서 '간편결제 아이디' 입력만으로 카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삼성카드도 고객이 지정한 컴퓨터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모든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카드는 4만개 이상의 가맹점을 통해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30일부터 일부 가맹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확대한다.

하나카드는 31일까지 7만개 가맹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비씨카드는 지난달부터 12개 가맹점에서, 롯데카드는 지난 18일부터 롯데그룹사와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약관 승인 심사가 끝나는 29일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세요

조응천 '정윤회 문건' 건넨 정황

박지만 회장에 전달 혐의 포착… 30일 구속 여부 결정

조응천(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일명 '정윤회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은 지난 2월 정씨가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결론났다.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이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이 업무 중 입수한 동향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문건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를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30일 결정된다.

/이정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부동산3법 등 100건 처리

최경환 증인채택 '공방'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첫 본회의다.

주요 쟁점 법안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왔던 '부동산 3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유주영기자 boa@

박지원·문재인 대표경선 출마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강한 야당, 당원이 원하는 통합 대표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당 대표에 나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어떤 계파로부터도 자유롭다"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문재인 의원과의 차별점을 부각시켰다.

또 "저는 정권을 다시 찾는 일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며 "당의 대선주자들이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당권·대권 분리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의원도 29일 11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유주영기자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114건 수용 정부가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하면서 범정부적 규제개혁에 속도가 더해지게 됐다. 전체 건의 건수 153건 중 수용된 과제는 114건으로 수용률은 74.5%에 달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민관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뉴스&뉴스

정동영 탈당 후 '국민모임' 합류 가능성 커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27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을 가는 데 있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밀알과 밑거름이 되겠다"며 탈당 후 진보 진영의 신당 창당에 합류 가능성을 높였다.

정 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지지자들과 송년모임을 겸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고문은 다음주 당내 인사와 각계각층의 원로를 만나 조언을 구한 뒤 내년 초 탈당과 국민모임 합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출범한 국민모임은 각계 각층의 진보 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진보적 대중 정치 복원과 정권교체를 위한 신당 추진모임이다.

박 대통령, 오늘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2014년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는 각 부처가 1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노후생활보장 ▲국민의료비부담 경감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 ▲통상협력 강화 ▲4대악 근절 ▲맞춤형 고용복지 통합전달체계 구축 등 38개 핵심 국정과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돌입… 여야 격돌 예고

최대 쟁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증인 채택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하고 100일간의 국조 기간에 들어간다.

이번 국조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공세에 주력해온 야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점 위주로 맹공을 펼치는 반면, 여당은 방어에 주력하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끌어들여 역공을 펴는 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국조특위에 각각 친이와 친노계 의원들을 전진 배치해 격돌을 예고했다.

여야는 출발부터 국조 범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국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정권별로 기간을 구분하지 말고 원유, 셰일가스, 희토류 등의 사업별로 역대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노영민 위원장은 지난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는 말은 정쟁으로 물타기"라며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는 정권의 치적쌓기나 권력형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로 타깃을 한정했다.

또 하나의 핫이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느냐 여부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현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해서도 증인 채택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최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국조를 위해 장관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며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상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입증돼야만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주영기자

에어아시아 추락 추정

난기류 만나 떨어진 듯… 한국인 3명 포함 162명 탑승

28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가던 에어아시아 QZ8501기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객기에는 한국인 3명을 포함해 승객과 승무원 162명이 타고 있었다.

자카르타포스트 온라인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에어아시아기가 벨리퉁섬에서 약 145㎞ 떨어진 남위 03.22.46, 동경 108.50.07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수색구조청은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 사이에 있는 벨리퉁섬으로 구조팀을 파견했다. 사고기는 벨리퉁섬 근처에서 폭풍우를 피하려고 바다 위 상공을 선회하다 난기류를 겪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기는 이날 오전 7시24분(한국시간 8시24분)께 자카르타 관제탑과 교신이 끊겼다. 인도네시아 시간으로 5시35분께 주안다 국제공항을 출발, 8시30분께 싱가포르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발표한 탑승객 명단에 따르면 한국인 탑승객은 박성범, 이경화, 박유나(유아) 등 3명으로 여수제일교회 소속 선교사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 대부분인 149명은 인도네시아인이며 싱가포르, 영국, 말레이시아인도 1명씩 있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당국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공군과 해군도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저가 항공사다. 앞서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 이미 두 건의 항공기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 7월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미사일에 격추, 탑승자 298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지난 3월에는 239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이 남인도양에서 실종됐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인도네시아발 싱가포르행 에어아시아 QZ8501기 실종과 관련, 이정관(오른쪽)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바다에 '풍덩' 28일 경북 포항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린 '겨울바다 돌고래 수영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추위에 아랑곳없이 바닷물에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투기 정비대금 240억 빼돌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가짜 서류로 수백억원대 전투기 정비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B사 대표 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교체한 것처럼 기술검사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을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66차례에 걸쳐 240억789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기간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과 457억원 규모의 부품 정비계약을 맺었다. 빼돌린 돈이 계약규모의 절반을 넘는다.

박씨는 정상거래처럼 꾸미려고 페이퍼컴퍼니를 포함한 국내외 협력업체 10곳을 동원했다. 부품업체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한 물품대금은 수수료 7~8%를 뗀 뒤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유주영기자 boa@

공사장 재해 119신고 '저조'

전체사고 10분의 1 안돼… '골든타임' 놓칠 우려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되는 경우는 전체 사고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119를 외면하고 계약된 사설병원에만 환자를 보내 공사장에서 다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119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최근 건설노조에 따르면 실제로 많은 대형 공사장이 지정병원과 연계돼 있다.

서울 월계동에서 아파트를 짓는 SK건설은 서울현대병원, 서울 마곡지구 건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은 스카이정형외과, 전주 혁신도시의 호반건설은 박OO 정형외과 등 민간병원과 연계돼 있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게 돼 있어 이미 발생한 사고를 완전히 '은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119에 신고하면 언론에 바로 노출될 우려가 있고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 지정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에서 볼 수 있듯 지정병원에만 연락하면 가까운 소방서 대신 지정병원에서 출발한 응급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당시 롯데건설은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119안전센터보다도 두 배 먼 거리에 있는 지정병원에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주영기자

대포통장 5000회 배달한 퀵서비스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수집해 배달한 퀵서비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대포통장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각에 쓰일 것들이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퀵서비스업체 A사 대표 B(43·여)씨와 서울지사 대표 C(39)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약 5000 회에 걸쳐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수집해 전국의 인출책과 송금책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내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입사지원이나 대출신청에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통장과 카드 등을 준비하게 한 뒤 B씨와 C씨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유주영기자

성남 모란시장 닭 AI 확진… 판매업소 폐쇄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판매하던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8형)가 발견되면서 AI 확산이 우려된다.

올해 9월 이후 수도권 지역의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27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 22일 예찰과정에서 채취한 닭 사료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시장 안에 기르던 가금류 등 32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닭 판매업소 11곳을 폐쇄했다. 또 AI에 감염된 토종닭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의 한 농장에 대해 소독·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의 닭·오리 등 가금류 판매시설과 계류장, 가금중개상 운송차량에 대해 방역차량 등을 이용해 일제히 소독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전통시장이라 감염된 닭이 소비자에게 판매·유통 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AI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정우기자 cyclone@

서울여대 편입학 23대 1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23일 2015학년도 편입학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99명 모집정원에 2313명이 지원해 23.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작년에 기록한 20.21대 1의 경쟁률보다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일반편입은 27.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시각디자인학과가 43.5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언론홍보학전공이 43대 1, 교육심리학과와 의류학과가 41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학사편입은 경쟁률 17.24대 1을 기록하였고, 시각디자인학과가 52대 1로 일반편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는 양

metro Russia

3년째 근무 인기폭발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카페에는 특별한 양이 있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톨릭'이 그 주인공이다.

톨릭은 벌써 3년 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다. 몇몇 손님들은 톨릭을 보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 톨릭이 가게에 출근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게를 둘러보며 손님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이다. 어린이 손님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눈에 띄는 선명한 색상을 좋아하는 톨릭은 종종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카페에 출근한다. 톨릭의 취미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카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다.

멋진 스타일과 매너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톨릭에게도 고민거리가 있다. 바로 먹이 문제다. 톨릭의 유모 예브게니아는 "평소에는 톨릭이 좋아하는 풀이나 사과 등을 실컷 먹을 수 있지만 카페에서는 먹을 수 없다"며 "배고픈 톨릭이 여자 손님의 치마를 먹으려고 해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톨릭은 네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카페에서 열린 생일파티에는 그를 좋아하는 카페 손님들이 함께했다.

/다리아 부아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패스트푸드점 '요리법 강도'

metro France

최근 프랑스 리옹 근처 마을 에퀼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강도가 들었다.

패스트푸드점의 관리인이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자마자 남성 두 명이 들이닥쳤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그들은 권총을 관리인에 겨누며 그가 옮기고 있던 요리비법이 담긴 가방을 요구했다.

론 알페 지역지인 '르 프로그레'에 따르면 강도가 관리인을 협박했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도망쳤다. 결국 관리인은 요리법이 들어있는 가방을 끈질기게 지켜냈다.

경찰에 신고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온 관리인은 "두 강도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도망칠 때 남겨뒀던 피자와 샌드위치만 가져갔다"고 말했다. /피에르 알렉상드르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철거 안 하면 에이즈 감염?

metro HongKong

최근 중국 허난성 난양시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부동산 업체가 철거가 필요한 건물 곳곳에 '에이즈 철거대'라는 붉은색 문구를 써놓았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에이즈 환자 십여 명으로 철거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이주하지 않으면 에이즈에 감염시키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며 너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북한 '인터뷰' 보복 시작

"오바마는 원숭이" 등 원색 비난… 소니 계열사 접속 장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가 개봉했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보복'을 시작했다.

27일(현지시간)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보수 세력이 성탄절에 영화 상영을 강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미국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오바마 대통령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또 북한 측은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소니)에 대한 해킹 공격은 자신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3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인터넷망 불통 사태는 미국의 해킹 보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북한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3G망은 또 끊겼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극장 앞에서 영화 '인터뷰' 포스터를 들고 있는 남성.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의 '막말'에 백악관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오바마 대통령을 '잡종', '광대' 등 인종차별적 표현을 동원해 비하한 바 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대변인은 당시 성명에서 "북한이 과장된 언동으로 악명 높기는 하지만 이번 언급은 특히 무례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소니 계열사는 인터넷 접속 장애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PSN)의 접속 장애는 나흘 연속 이어졌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SCEA) 측은 "엔지니어들이 온라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PSN은 24일부터 심각한 접속 장애를 겪었다. 장애 발생 시작 시점은 '인터뷰'가 온라인에 배포된 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뉴욕 경찰들 '등돌려' 시위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퀸즈에서 대형 화면으로 라파엘 라모스 경관의 장례식을 지켜보던 수백명의 경찰관이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추모사에 등을 돌리고 있다. 라모스 경관은 지난 20일 흑인 청년에 피격돼 숨졌다. 이후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뉴욕을 비롯해 미 전역에서 열렸다. 더블라지오 시장이 이들 시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뉴욕 경찰들은 이날 '무언의 시위'를 펼쳤다. /로이터 연합뉴스

맨해튼 아파트값 사상 최고

미국 경제 훈풍 예고… 내년 전망 낙관 늘어

미국 경제가 빠르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내년도 살림살이에 대해 낙관하는 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맨해튼 평균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AP통신은 지난 12~14일 미국 전역의 성인 1017명을 상대로 새해 경제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8%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28일 밝혔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은 11%에 불과했다.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인 뉴욕 맨해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맨해튼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자체 분석한 결과, 평균 가격이 168만 달러(약 18억 5000만 원)로 나타났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 오른 것으로 사상 최고였던 2008년보다도 10%나 높다.

특히 고가주택의 매매가 활발했다. 2500만 달러(약 274억 8000만 원) 이상에 팔린 아파트는 모두 33채로 2008년보다도 25% 늘어났다.

파크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는 7130만 달러(약 783억 7000만 원)에 팔려 올해 매매된 아파트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고급 아파트는 헤지펀드 '밀레니엄 매니지먼트'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이스라엘 잉글랜더가 8월에 구입했다.

/이국명기자 kmlee@

ㅊ

천사의날개

[Angel's Wing]

명 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

통학버스에 타고 내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기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이륜차가 멈춰설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천사의 날개'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이 함께 합니다

{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현대자동차그룹 }

꿈의 신소재 '폴리케톤' 세계 최초 상용화

사람이야기

■ 효성 폴리케톤 사업단

이원 전무

효성은 지난 2013년 11월 10여년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꿈의 친환경 신소재라 불리는 '폴리케톤'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플라스틱의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인 폴리케톤은 1938년 나일론이 개발된 이후 가장 획기적인 신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나일론보다 더 가볍고 강해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주기 때문에 차세대 신소재로 응용분야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로 만들고 기존 소재(나일론, 폴리아세탈)보다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월등해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의 내외장재·연료계통 부품으로 쓰인다. 또 폴리케톤으로 섬유를 만들 경우 초고강도, 초고탄성의 특성을 가진 슈퍼섬유를 만들 수 있어 산업용 로프, 벨트, 타이어코드 등에 사용된다.

효성은 엔지니어 출신 기업가인 조석래 회장의 "세상에 없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라"는 특명에 따라 10년간 500억원을 투자해 마침내 폴리케톤 개발에 성공했다. 회사는 2020년까지 폴리케톤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가가치만 1조원에 달하고,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면 최소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소재 개발에 크게 기여한 효성 폴리케톤 사업단 이원 전무를 만나 개발과정을 들어봤다.

이원 전무는 폴리케톤을 상용화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조석래 회장의 기술개발에 대한 '뚝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재 개발도 중요하지만 상용화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신소재 상용화를 독려한 조 회장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소재 선진국들도 줄줄이 실패한 폴리케톤이 개발되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업체들이 1980년대부터 폴리케톤을 개발하기 위해 애썼지만 생산기술 확보가 어려워 제품화하는데 실패했다"며 "한해 50억원씩 총 500억원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등 10년 동안의 끈질긴 노력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회상했다.

특히 그는 "폴리케톤 개발이 한창일 때, 조 회장이 연구실에 수시로 연락해 진척상황을 묻고, 연구가 지지부진하면 연구원들을 친히 불러 격려하기도 했다"며 "소재 개발은 점진적인 과정보단 어느 순간 성공하는 것인데 조 회장이 성과가 없을 때도 묵묵히 기다려줬던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폴리케톤 상용화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천소재 기술이 없어 항상 외국에서 소재를 수입해왔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신소재 개발에 성공한다면 수입대체효과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재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효성은 2015년 3월 연산 5만톤 규모의 폴리케톤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1조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폴리케톤 소재개발 인력과 부품생산 인력 등 산업 전반에 걸쳐 8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전무는 "2015년 폴리케톤이 적용 가능한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규모는 66조원 규모로 연간 5%이상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효성은 공장 증설을 통해 현재 프로필렌 생산 능력을 연간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려 고가 원료인 프로필렌을 전량 자체 조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해외 시장에서 선도적 위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ksgit@metroseoul.co.kr

포털·모바일쇼핑株 약진

올 한해 네티즌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이트는 포털과 쇼핑 업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모바일 쇼핑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8일 랭키닷컴 연말 통계에 따르면 트래픽 상위권은 여전히 포털 사이트가 독식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가운데 다음카카오 출범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점유율은 70% 후반대로 강세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업계 1위였던 다음은 지난 7월이래 점유율 20%가 무너진 상태다. 다음이 카카오 합병을 계기로 점유율을 높일지가 관건이다.

업종별 1위는 지난해와 큰 변함이 없었다.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종합 8위), 시중 은행은 KB국민은행(종합 9위), SNS는 페이스북(종합 10위)이었다.

한편 포털을 제외하면 상위권 대부분은 쇼핑 업종에서 나왔다.

오픈마켓 11번가와 G마켓·옥션은 각각 인기 사이트 5~7위를 차지했으며 인터파크는 14위였다. 소셜커머스 위메프와 쿠팡은 11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렸고 티켓몬스터는 15위였다.

특히 모바일웹에서의 쇼핑 트래픽이 대거 올라갔다. 올해 들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랭키닷컴 통계에 따르면 상위 7개 앱카드의 월평균 이용률은 지난해 3%에서 올해 11%로 상승했다. 모바일 이용자 10명 중 1명은 매월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셈이다.

NAVER
Daum
NATE

시중 카드사들이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확충한 가운데 지난 9월에는 카카오가 막강한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페이'를 선보여 업계를 긴장시켰다.

문지은 랭키닷컴 데이터사업부 부장은 "모바일 유입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모바일 간편 결제 발전은 TV 홈쇼핑에 익숙한 중장년층까지 모바일 쇼핑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CJ,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억 기탁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소외 이웃돕기 성금으로 20억원을 기탁했다.

CJ그룹 강석희 경영지원총괄부사장은 지난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해 달라며 성금 20억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총괄부사장은 성금 전달 배경에 대해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고 CJ그룹도 국민의 고통을 공감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느낀다"며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그룹 강석희 경영지원총괄부사장(사진 왼쪽)이 지난 26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에게 성금 20억원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그룹 제공

이에 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은 "올 해 경제상황이 어려워 성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CJ그룹의 후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 측은 이번 성금 기탁을 기해 정부와 민간단체와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나눔 경영 철학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소외층 아동 교육 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해 청년실업, 양극화와 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인사정책과 나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

구광모 상무, (주)LG 3대 주주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광모(사진) ㈜LG 시너지팀 상무가 ㈜LG의 3대 주주로 올라섰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26일 ㈜LG 지분 190만주를 구 상무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구 상무는 ㈜LG의 지분 5.83%를 보유하게 됐다.

㈜LG의 최대 주주는 10.79%를 보유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이며,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7.57%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이다.

3대 주주였던 구본능 회장은 지분 3.95%를 보유해 구본식 희성전자 사장(4.39%)에 이은 5대 주주로 두 계단 내려갔다.

구 상무는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의 친아들로, 2004년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태균기자

1972

인재의 숲 조림 초창기 나무를 심고 있는
故 최종현 선대 회장 부부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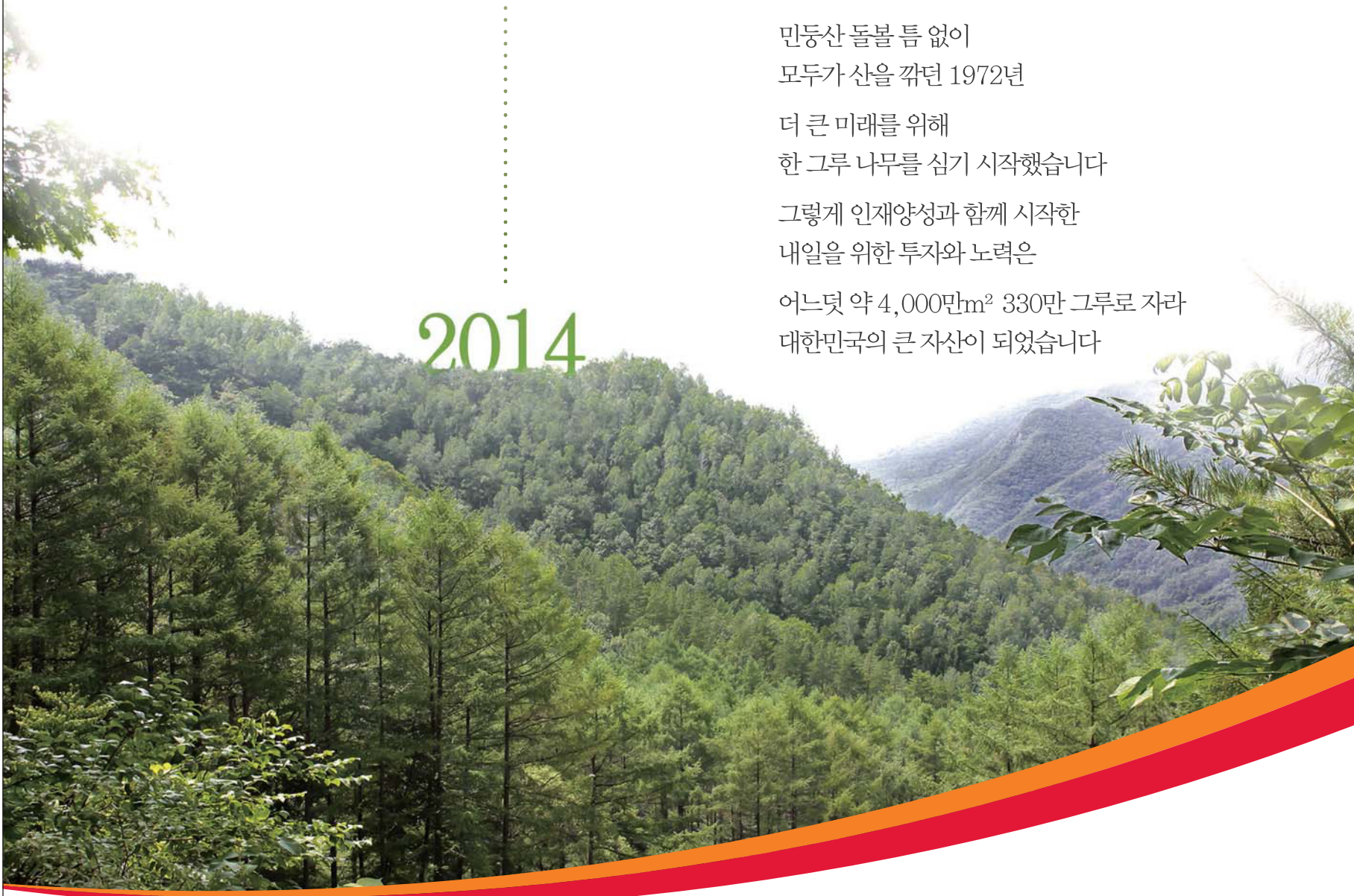
2014

사람을 키우듯
나무를 키우다

민둥산 돌볼 틈 없이
모두가 산을 깎던 1972년

더 큰 미래를 위해
한 그루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인재양성과 함께 시작한
내일을 위한 투자와 노력은

어느덧 약 4,000만m^2 330만 그루로 자라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믿음,
변치 않고 지켜갈 SK의 믿음입니다

SK '인재의 숲'은 녹색공헌(綠色貢獻)과 조림을 통한 장학기금 마련이라는 큰 뜻 아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육성된 대규모 경제림입니다
42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금은 충남 천안, 충북 영동, 경기 오산 등 4개 지역에 숲 약 4,000만m^2, 나무 330만 그루를 조성하여 산림자원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arket index <26일>

코스피 1948.16 (+1.55)

코스닥 535.17 (−1.72)

금리(국고채 3년) 2.16 (+0.01)

환율(원·달러) 1099.20 (−3.10)

서울 전통시장 후불카드로 결제 서울시는 망원시장, 길동시장 등 6개 시장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서울시내 330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는 물론 티머니형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새해 기업 경기전망 최저

내년 시작부터 '1년 만에 최악'이라는 경기 불황이 산업계를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 조사 결과 1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0.3으로 기준선 100을 밑돌았다.

이는 전반적 경기부진 지속, 소비여건 부진, 중국 경기 둔화, 대외 변동성 확대 등의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경기전망지수는 11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진단하며 "수요 창출과 경제심리 회복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치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내수(92.8), 수출(91.4), 투자(95.0), 자금사정(95.4), 재고(103.1), 고용(98.7), 채산성(91.6) 등 모든 부문에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박성훈기자 zen@

로또복권 제630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8	17	21	24	27	31	1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4,836,305,5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0,378,183
3등	5개 숫자 일치	1,482,62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KT vs 반KT, '합산규제' 끝장승부

미방위 오늘 법안소위… 유료방송업계, 결론 여부에 촉각

유료방송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KT와 반KT간 갈등을 빚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파행으로 불발됐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9일 다시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미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17일에도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인해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내년 1월 9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하고 임시국회를 재개했다. 임시국회 일정이 내년 1월 14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합산규제 법안도 이 기간 내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지난 17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미방위 법안소위 자체가 파행되면서 KT는 한숨을 돌렸다. 합산규제 법안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반면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결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서비스를 본격 내놓으며 갈등 양상이 생겼다. KT는 OTS를 신규 방송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케이블TV업계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반KT 진영에선 한 사업자가 두개의 유료방송플랫폼을 이용해 독점체제를 만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노동조합은 "위성방송은 국가적 난제였던 난시청 해소, 다채널·디지털 콘텐츠 강화, 통일매체 역할수행 등을 위해 추진된 국책사업"이라며 "합산규제는 회사에 전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유통망과 조합원 등 4만5000명의 종사원들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산규제가 시한에 쫓겨 졸속처리돼선 안된다"며 "합산규제를 도입하려면 위성방송의 정체성과 미래, 종사원들의 생존권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KT 진영은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논리를 따지기보다 독과점 우려를 떨치고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한 사업자가 전국 단위 두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며 "방송산업의 발전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합산규제의 국회 통과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를 합산해 규제하는 법안(합산규제)을 통합방송법 개정안에 도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부동산3법 통과 기대감, 강남권 재건축 '꿈틀' 국회와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사진은 개포 주공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새해 저소득층 위해 '금리 2%' 월세 대출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리 2%의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또 최저시급은 5580원으로 인상되고, 계약직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취급할 수 있다.

새해에는 해외여행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과 관련해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으면 다른 기업에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담뱃값은 1월부터 한 갑당 평균 2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금연구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돼 일부 운영되던 흡연석이 전면 금지된다. /박선옥기자 pso9820@

이케아 흥행몰이에 부동산시장도 '들썩'

지난 18일 문을 연 이케아 한국 1호점이 초기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일대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첫 삽을 뜨고도 8년간 지지부진했던 광명역세권 개발사업이 이케아 개점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공급된 3개 단지가 모두 완판 행진을 벌였다.

대우건설의 '광명역 푸르지오'에 이어 GS건설 '광명역 파크자이', 호반건설 '광명역 호반베르디움'이 1순위 마감과 함께 단기간 내 아파트 계약을 마감했다. 또 아파트와 같이 계약을 진행한 오피스텔도 보름도 안 돼 100% 팔렸다.

사실 광명역세권지구는 당초 2006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표류했고, 올 초까지만 해도 좌초 얘기가 나왔을 만큼 상황이 좋지 못했다.

그러다 코스트코와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 이케아까지 연달아 영업에 들어가고, 광명디자인클러스터와 석수스마트타운의 조성이 가시화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선옥기자

LIG손보 품은 KB '리딩뱅크' 시동

윤종규號, 방카슈랑스 채널 활용 시너지 극대화

KB금융이 1차관문인 LIG손해보험 인수에 성공하면서 윤종규(사진) KB금융 회장의 '소통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

금융계는 "조용하지만 뚝심있는 윤 회장의 리더십이 통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안건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대신 KB금융이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개선계획을 내년 3월까지 충실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LIG손보 인수 승인으로 윤 회장은 '리딩 금융그룹' 위상 회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게됐다.

생명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그룹은 많다. 그러나 손보사를 자회사로 둔 금융그룹은 KB금융이 처음이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IG손보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원수 보험료 점유율(13%)과 업계 당기순이익 점유율(10%)이 4위인 대형 손보사다.

KB금융 측은 "국민은행 점포의 방카슈랑스 채널을 활용해 소매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기존 은행 기업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력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KB의 브랜드 파워와 기존 LIG손보의 역량을 결합해 손해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사업자나 중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새로 출범할 'KB손해보험'이 2위 자리에 안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결국 윤 회장이 가진 융합의 리더십 성공 여부가 LIG손보와 KB금융의 시너지 창출을 판가름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이 LIG손보의 조직문화를 얼마나 잘 융합해 끌고 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성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KB금융과 LIG손보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못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시너지 효과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한 것은 성장을 높이려는 방편이면서 장기적으로 '비은행 침투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승일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KB금융의 경우 비은행 부문이 강화되고, LIG손보는 KB금융의 전국적인 영업망을 활용한 고객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LIG손보 인수 승인이 일단락되면서 윤 회장은 그동안 미뤄왔던 조직개편 및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추스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은행,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2년 연속 수상 신한은행 왕태욱 부행장(가운데)과 신한은행 직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산업銀, 상임이사에 이대현 부행장

산업은행은 내달 1일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에 따른 임원 인사를 지난 26일 단행했다.

정책금융 강화를 위해 이번에 자리를 신설한 신임 상임이사에는 이대현 부행장(현 기획관리부문장)을 내정했다.

이 부행장은 경기도 연천 전곡고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워싱턴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쳤다. 국제금융실 팀장, 종합기획부 신사업추진팀장, 홍보실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행장 선임에 따라 통합 산은의 상임이사는 기존 홍기택 산은 회장과 류희경 수석부행장 등 2명에서 이 부행장까지 3명으로 늘게 됐다. 홍 회장과 이 부행장은 모두 서강대 출신이다.

신규 집행부행장은 4명이 선임됐다. 정책금융공사 출신 인사로는 유일하게 나성대 경영기획본부장이 온렌딩 등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금융부문장에 선임됐다.

임해진 재무회계부장은 성장금융2부문장, 윤재근 트레이딩부장은 리스크관리부문장, 성주영 홍보실장은 창조기술금융부문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부행장 전보 인사는 김수재 경영관리부문장(현 성장금융부문장), 이해용 심사평가부문장(현 자본시장부문장), 김영모 자본시장본부장(현 리스크관리부문장), 송문선 기업금융부문장(현 투자금융부문장), 정용호 성장금융1부문장(현 개인금융부문장) 등 5명이다.

신임 부행장 가운데 임 부행장은 1978년 덕수상고 졸업 후 곧바로 산업은행에 입행한 고졸 출신이어서 이목을 끈다. 고졸 출신 부행장이 임명된 것은 임 부행장이 처음이다.

그는 입행 후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으며 치밀하고 깔끔한 업무처리 능력으로 신망을 얻고 있다. /백아란기자

산업은행은 내달 1일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 법인 출범을 앞두고 26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상임이사에 내정된 이대현(현 기획관리 부문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나성대·임해진·성주영·윤재근 신임 부행장. /산업은행 제공

금융권, 문화콘텐츠 상품 속속 출시

금융권이 영화와 드라마 등 젊은층의 고객들에게 관심이 높은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문화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미생' 브랜드와 손잡고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미생카드'를 출시했다.

미생카드는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다룬 작품인 미생의 독자층과 타깃을 맞춰 핵심 고객층도 사회초년생으로 잡았다. 카드사와 드라마 콘텐츠의 제휴로 신용카드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커피와 외식, 영화 등 외식문화 업종부터 대중교통과 온라인쇼핑, 여성직장인을 위한 화장품 할인까지 젊은 직장인이 자주 사용하는 필수 업종에서 5~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미생카드로 결제한 일시불과 할부 금액의 0.1%는 미생의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의 뜻에 따라 만화 문화 사업 육성을 위한 후원금으로도 사용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2010년부터 시리즈로 선보이는 '시네마정기예금'은 20~30대 젊은 고객층과 영화를 좋아하는 고객을 타겟 영화와 금융상품이라는 두 가지 관심을 절묘히 조화시킨 차별화된 상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영화배급사 ㈜와우픽쳐스와 공동 마케팅 협약을 맺고 조선시대 궁중의상극을 담은 영화 '상의원'을 시네마정기예금으로 내놨다.

내년 1월 9일까지 판매되는 이 예금은 1년제 정기 예금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2.20%에 영화 관람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25%, 200만명을 돌파하는 경우 연 2.30%의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작은영화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3억원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 2010년 출시된 'KB영화사랑적금'을 통해 조성됐다. 이는 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적금으로, 만기 이자의 1%를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사회공헌형 상품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MG손보,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후원금 지난 26일 MG손해보험은 임직원이 모은 후원금 1000만원과 헌혈증 114장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제공

세탁기 청소 이렇게…

짠순이 주부 경제학

온갖 얼룩과 먼지로 뒤덮인 옷을 세탁하는 세탁기. 이런 세탁기 역시 청소가 필요하다는 사실!

세탁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곰팡이, 세제찌꺼기, 물때 등이 뒤섞여 유해세균의 번식지가 될 수 있다.

세탁기에서 나온 곰팡이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천식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먼지가 잘 붙고 보풀이 많이 일어나는 옷을 세탁하기 때문에 세탁기 내부 세탁조의 오염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한 달에 2~3번 정도는 청소해 주는 게 좋다. 우선

'일반 세탁기'의 경우 따뜻한 물에 빙초산을 넣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 걸레 두 장을 넣어 세탁하면 세탁기 안의 먼지와 세제찌꺼기 등이 제거된다. '드럼세탁기'는 식초 한 컵을 넣은 뒤 걸레와 함께 돌려주는 게 효과적이다.

물 순환 필터 청소도 중요하다.

세탁기 고무패킹을 젖혀 이물질을 빼내고 내부 습기를 제거해 준다. 그 후 뜨거운 물이나 세탁조 청소 세제를 받아 세탁기를 한번 돌려주면 세균 없는 깨끗한 세탁기가 된다.

세탁을 할 때는 가루세제보다 액체세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녹지 않은 세제가 세탁기와 세탁물에 남아 각종 세균을 번식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세탁기 뚜껑은 세탁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열어두는 것이 좋다. 세탁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증발시키고,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억제 시킨다. 드럼세탁기는 세탁이 끝나면 배수구에 남아있는 물을 빼주는 게 좋다. /김민지기자 minji@

이트레이드,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

이트레이드증권이 이베스트투자증권으로의 사명 변경을 확정 공표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 26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상호를 '이베스트투자증권주식회사'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회사 측은 새 사명에 대해 "2008년 이후 도입된 신규 사업들의 매출 비중이 늘면서 온라인 부문의 수익 비중이 30% 정도로 낮아졌다"며 "향후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새 사명의 의미로는 "당사의 모태이자 온라인 투자의 DNA를 담은 '이(e)'와 각 사업별 1등분야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베스트'가 합쳐진 이름"이라며 "규모가 크지 않지만 가장 사업성이 뛰어난 증권사를 지향하는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취적 사고와 역동성을 상징하는 색깔을 조합한 CI도 선보였다. /김현정기자

<잠재 위험요소>

내년 증시 강타할 그레이스완은?

월가, 연준 정책 에러 등 복병 10가지 제시

내년 글로벌 증시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리스크는 무엇일까? 다우지수가 사상 첫 1만8000선을 돌파하는 등 거침없는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급락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도 높다.

월가 전문가들은 2015년 증시에서 복병으로 숨어있는 잠재 위험요소, 일명 '그레이스완(gray swan)' 10가지를 제시했다.

지난 2007년 증시 대폭락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블랙스완(black swan)'과 비슷한 개념이다. 다만 블랙스완이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충격과 파급효과가 엄청난 사건을 일컫는 것과 달리, 그레이스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을 지칭한다.

발생 후 파장이 크며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선 블랙스완 못지 않은 복병으로 여겨진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내년 가장 우려되는 그레이스완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 에러 가능성이다.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시행하면 경기 회복을 망칠 수 있고, 그렇다고 인상 시기를 늦추면 추후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국제 유가가 급반등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우려 요인이다.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속에 반토막 난 국제 유가 가격이 갑자기 급등세로 돌아서면 충격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리비아 등 정정불안이 심한 산유국에서 원유 수출 재중단과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벌어지면 최근 공급과잉 사태가 반전될 수 있다.

그리스발 유럽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초 그리스의 조기 총선에서 긴축 정책 반대,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는 정당인 시리자(급진좌파연합)가 집권할 경우, 추가 구제금융 협상이 무산되면서 디폴트를 맞을 우려가 제기됐다.

그 외에 사이버 전쟁과 금융시장 유동성 증발, 신흥국 외환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 에볼라 확산, 테러 위협, 중국과 일본간 영유권 분쟁 등이 내년 증시를 위협할 그레이스완으로 꼽혔다.

한편 러시아 위기가 향후 블랙스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눈길을 끈다.

데이비스 스타맨 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달 중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발 지정학적 불안이 시장에 잠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러시아로 인해 야기된 불안으로 미국 뉴욕증시가 수백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며 "지난 2009년 초부터 생성된 자산버블이 터지기 직전 상황까지 와 있다"고 경고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한화손보, '혁신성과 보고대회' 한화손해보험은 26일부터 이틀 동안 경기도 용인 소재 한화생명 연수원에서 '혁신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제공

교보, 직무윤리실천 서약으로 새해 출발

교보생명은 모든 임직원이 새 사업연도 출발에 앞서 직무윤리실천 다짐서약에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가장 먼저 다짐서약을 하며 윤리경영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회사는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을 다하고 고객·투자자·정부·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직무윤리실천규범에는▲사회법규와 회사규정 준수 ▲고객·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직무윤리 ▲컨설턴트 존중·배려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회봉사와 환경·인권보호 ▲대외 활동 시 윤리적 자세 ▲선물·접대·경조금에 관한 세부지침 등이 포함됐다.

신창재(왼쪽) 교보생명 회장과 국다현 준법감시인이 '교보인의 직무윤리실천규범'을 들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 관계자는 "윤리실천 서약은 전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책임을 되새기고 새해를 차분하게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당한 이익과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하나프리 자유여행

비정상 특가

하나투어 단독

아시아나와 함께 가격은 비정상으로~
하나프리와 함께 여행은 최정상으로~

미국 · 영국 · 프랑스 · 이태리 · 독일 · 터키 · 호주

아시아나항공 타면, 각지역별 필수 입장권 • 교통패스 • 현지투어는 덤!

유럽 덤!

✔ 파리	✔ 런던	✔ 프랑크푸르트	✔ 이스탄불
뮤지엄 패스 2일권 (6만원 상당)	런던아이 입장권 (4만원 상당)	시티카드 (2만원 상당)	시티투어 (5만원 상당)

호주 덤!

✔ 시드니
마이멀티데이패스 (2만원 상당)

미주 덤!

✔ 뉴욕	✔ 샌프란시스코	✔ 로스앤젤레스	✔ 시카고	✔ 하와이
시티패스 (10만원 상당)	시티패스 (9만원 상당)	유니버셜 스튜디오 1일권 (8만원 상당)	시티패스 (9만원 상당)	렌터카 1일 (15만원 상당)

유럽 자유여행

파리 6일
1,190,000부터
(유류할증료 및 항공 텍스 포함)
▶2015년 1월~3월 매주 월,수,토요일 출발
● 파리(4) ● 파리직항 및 뮤지엄패스 2일권(6만원 상당)
● 세느강유람선 티켓 제공

유럽 자유여행

런던/파리 8일
1,240,000부터
(유류할증료 및 항공 텍스 포함)
▶2015년 1월~3월 매주 월,화,목,토,일요일 출발
● 런던(3)–파리(3)
● 왕복 직항 및 뮤지엄패스 2일권(6만원 상당) 제공

유럽 자유여행

이스탄불 6일
1,192,200부터
(유류할증료 및 항공 텍스 포함)
▶2015년 1월~3월 매주 화,금,일요일 출발
● 이스탄불(4) ● 터키 3종 가이드북 제공
● 왕복 직항 및 이스탄불 시내투어(4만원 상당)

www.hanatourist.com

상담문의 **1566-0034**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권일/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가이드/기사경비 :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있음/없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보단계 : ❶여행유의 ❷여행자제 ❸철수권고 ❹여행금지(2014.12.26.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매너팁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칭찬/불편접수 :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교육·교통 3박자 '홍제 금호어울림'

단지 옆 안산 7km둘레길, 인왕·북한산 인접
3호선 홍제역이 도보 거리, 91가구 일반분양

1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7년 만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

금호산업 건설사업부(이하 금호건설)는 홍제동 무궁화단지를 재건축한 '홍제 금호어울림'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3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96가구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9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실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84㎡로, A~E까지 5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설계됐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홍제동 일대는 안산, 백련산, 인왕산, 북한산 등이 인접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이다. 특히 홍제 금호어울림은 바로 앞으로 안산 7㎞ 둘레길이 조성돼 조망권과 함께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해 단지 도보 3분 거리에 현대홍익유치원, 고은초, 신연중이 있다. 또 반경 2㎞ 이내 정원여중, 홍은중, 한성과학고, 서울외국인학교 등이 들어섰다.

서울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걸어서 8분 거리로, 종로·광화문·신촌 등 도심으로의 접근이 쉽다.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내부순환로가 가까워 강북권은 물론, 강남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단지 바로 앞 서대문도서관을 비롯해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자연사박물관,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 등의 문화시설이 도보 거리다. 홍제·인왕시장, 서울 적십자병원, 서대문구청, 주민센터와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홍제 금호어울림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로 관리비 절감효과를 극대화했다.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태양광 발전설비, 디지털 멀티온조절시스템(실별 온도조절기), 일괄소등·가스차단 스위치, 원격검침시스템, LED센서 등의 설계를 적용했다.

최근에는 파격적인 '4無옵션'을 내걸었다. 전 가구 발코니 무료 확장에 이어 주방 팬트리, 전기 오븐렌지, 전동 빨래건조대 등의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분양가는 3.3㎡당 1290만원대부터다.

문정권 금호건설 소장은 "7년간 분양이 없던 홍제동에 오랜 만에 선보인 새 아파트로,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84타입을 전체 일반분양 물량으로 구성했다"며 "일대 노후된 아파트가 많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주택홍보관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17-5번지 백련빌딩 2층에 마련됐다. 입주는 2016년 4월 예정이다. 문의: 02)395-4600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스마트폰 특허戰 '중국 vs 非중국'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간 특허 전쟁이 중국과 비중국으로 나뉘고 있다.

창업 4년 만에 세계 4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떠오른 샤오미(사진)는 최근 기존 스마트폰 업체들의 특허를 협의 없이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세계 기업들과 심각한 특허분쟁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스웨덴 에릭슨의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며 샤오미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렸다. 이에 샤오미는 내년 2월 5일까지 인도내 수입과 판매, 광고가 금지됐다. 이는 샤오미의 첫 번째 특허분쟁이었고 또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도시장에서 패배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샤오미가 에릭슨과 특허 소송에서 패배한 판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샤오미는 경쟁업체의 특허를 사용하며 제품 단가를 낮췄고 이로인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동안 묵묵히 샤오미의 행동을 지켜봤던 업체들이 칼날을 겨누고 있어 더이상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샤오미가 뒤늦게 특허를 집중적으로 등록하고 있지만 경쟁업체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다. 지난해 국제특허 출원은 600건에 불과하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1~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특허 7643건, 해외특허 1만1289건을 출원했다. 특히 지난해 미국에서 4676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IBM에 이어 8년 연속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누적 특허건수는 11만765건으로, 한국 3만6559건, 미국 3만4203건, 유럽 1만5091건, 중국 9898건, 일본 7143건 등이다.

다만 같은 중국업체로 지난해말 현재 3만60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화웨이는 샤오미 측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다.

화웨이 측은 "화웨이가 샤오미 등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화웨이는 중국의 어떤 스마트폰 제조사와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ysw@

이통사, 다시 불붙은 속도 경쟁

'3밴드 LTE-A' 상용화…영화 한편 다운로드 28초

이동통신사간 속도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29일 세계 최초로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3밴드 LTE-A'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 LG유플러스도 내년 1월 초 동일 서비스 상용화에 나선다.

'3밴드 LTE-A' 서비스는 3개 대역 주파수묶음기술(CA)을 적용해 최대 300Mbps의 속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LTE(75Mbps)의 4배, 3세대(3G)보다는 21배 빠른 것으로, 1GB 영화 한편을 28초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

3밴드 LTE-A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이동사별로 3가지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기지국이 모두 필요하다.

SK텔레콤의 경우 800MHz, 1.8GHz, 2.1GHz 주파수가 모두 도달하는 교집합 지역에서 '3밴드 LTE-A'를 제공한다. KT는 1.8GHz, 900MHz, 2.1GHz 주파수가 모두 도달하는 교집합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2.6GHz 광대역 LTE와 800MHz, 2.1GHz 대역을 묶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주파수를 더해가는 LTE 진화 방향을 고려해 800MHz와 1.8GHz 대역 LTE망을 모두 확대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2.1GHz 대역 LTE망을 더해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광화문 KT올레스퀘어를 방문한 이용자들이 28일 '3밴드 LTE-A' 서비스가 적용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 단말을 체험하고 있다. /KT 제공

KT는 전국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을 기반으로 전국 85개 시 주요 지역에 쿼드 기술을 적용한 3밴드 LTE-A 상용망 구축을 완료했다. 내년 1월 중 전용 단말기가 출시되면 본격적인 전국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이번 서비스 첫 적용 단말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로 낙점했다. 다만 이번 적용 단말은 기존 갤럭시 노트4와는 다른 모델로, 450Mbps 속도를 지원하는 AP가 탑재돼 3밴드 LTE-A 서비스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여기에 내년 초 LG전자가 출시하는 3밴드 LTE-A 신규 모델을 국내 최초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유료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 평가단을 구성해 29일부터 '갤럭시 노트4 S-LTE'를 한정 출시,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28일부터 서울 광화문 올레스퀘어에 3밴드 LTE-A 체험존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일반 대학생 이용자로 구성된 체험단을 운영한다.

강국현 KT 마케팅전략본부장 전무는 "이용자들이 쿼드 기술로 4배 빨라진 놀라운 LTE 속도와 안정된 품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기업인 가석방, 더 미룰 일 아니다

청론탁설

유 병 필 <언론인>

새해 며칠을 앞두고 기업인 가석방이 이뤄져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한때 구속 중인 재벌총수를 풀어줘 경제살리기에 동참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유야무야하다 다시 거론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주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혼날 만큼 혼난 사람은 선처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 대표는 종전과 다름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박지원 중진의원은 이제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찬성의견을 내놨다. 정부에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을 적극 건의했다"면서 구속 중인 기업인 가석방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주무장관인 황교안 법무장관은 특정기업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줘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서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는 듯 하나 최근에 불거진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태로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와대의 공식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 문제는 법무부의 고유권한"이라면서 한 발짝 물러서 있다. 이는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기업인 가석방은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형기 3분의 1을 마치면 가석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인 가석방 대상이 많지도 않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몇 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새해는 우리경제가 장기 정체국면을 벗어나는 갈림길이 된다. 국제적으로 미국경제가 고개를 든다고 하나 일본경제가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혼미를 거듭하고 있고 중국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중이다. 여기에다 러시아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유로 존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마침 우리나라는 뒤 늦게나마 부동산관련 법안을 비롯해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됐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또한 오랜만에 노사정 합의도 이뤄졌다. 이러한 여건에 발맞춰 경제를 보다 활성화 시키자면 기업인 가석방을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칼피아' 반드시 뿌리 뽑아야

뉴스룸에서

김 두 탁 <경제산업부 차장>

'땅콩 회항' 사건의 여파가 국토교통부까지 뒤 흔들고 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최근 3년(2011~2013)간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벌인 서울지방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당시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 승급을 지적받았는데도 지난해 3월 출장에서 또다시 좌석을 승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징계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명이 2011년 3월~2012년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10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35명 가운데 32명은 경고 조치하고 3명은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 조치를 요구받은 3명도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등에서 경고 처분되는데 그쳤다.

그나마 이번 감사 결과는 지방항공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좌석 승급 관련 감사를 한 적이 없어 출장 등에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적발된 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국토부 공무원 등을 포함한 5명이 유럽 출장을 가면서 무료 좌석 승급 혜택을 받았다며, 국토부 공무원들과 대한항공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혜택이라고 한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좌석 승급을 받는 것은 항공업계에선 관행으로 통한다고 한다. 이러한 관행은 업체 봐주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의 대한항공 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칼피아'(KAL + 마피아,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를 뿌리 뽑아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포토프리즘 '이한치한' 쇼핑

27일 오후 두꺼운 옷을 입고 서울 명동거리를 지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손에 큰 아이스크림을 들고 즐거워 하고 있다. 이한치한(以寒治寒) 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손진영기자 son@

살아있는 영혼의 힘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지난 성탄절 전야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싱가포르에 있는 파트너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였다. 첨부된 파일을 여니 한 컷의 이미지와 한 줄의 메시지가 드러났다. "앤, 로널드, 소피아, 나탈리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두 딸을 나란히 앉히고 있는 가족사진은 올해로 11번째였다.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가족이고, 그들이 지인에게 전하는 인사는 가족애다. 스스로 갖는 책임 역시 가정이고, 그것이 한 해 삶에 대한 유종의 미다. 우린 누구에게 어떤 성탄절 인사를 건넸을까.

성탄절을 산사에서 보냈다. 몇 년 전 작고하신 어머니 기일이 25일에 닿아 아침 일찍 길을 나섰고, 두 시간 가량의 제사를 치렀고, 동생과 조카의 성탄 선물을 사서 귀가했다. 거실에 들어섰는데 누군가가 머물렀던 흔적이 역력했다. 유심히 둘러보다 흰 색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케이크는 냉장고에 있어. 맛은 보장 못해. ㅋㅋㅋ". 그제야 15살 아들이 아침부터 내내 혼자 분주했던 게 이해됐다. 아들 친구가 만들었다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보며 감탄했다. 제법 잘 구운 빵과 생크림이 그럴 듯 했다. 무엇보다 그 노력이 가상하고 기특했다.

크리스마스는 당일보다 전날이 더 중요하다. 24일 저녁부터 25일 새벽까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기쁜 성탄절이었는지, 우울한 휴일이었는지의 잣대가 되는 요즘이다. SNS에는 각자가 가진 인기를 증명하려는 이미지가 넘칠 정도다. 이 때문에 24일 초저녁 아나운서 후배의 방문을 받은 건 의외였다. 지나는 길에 잠시 인사하려고 들렀거니 했는데, 한 잔 두 잔 기울였던 소주 두 병이 비워지도록 자리를 지켰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자리에 흥미를 잃었다. 나 나이든 거야?"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뭔가를 깨달은 것이 아닐까.

생존이 화두였던 조부모님이 계셨고, 자본주의에 핍박 받았던 부모님이 계셨다. 집을 장만하는 일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고, 대학을 가는 것만이 살길이라 믿으셨다. 돈도, 학력도 의미 없다는 세대가 형성됐다. 너무나 많은 것이 쉽고 편리해진 시대가 됐다. 그래서일까. 아날로그적 사상을 넘어 인본주의적 사상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눈에 띄는 요즘이다.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관계를 위한 행위. 본능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우리다. 살아 있는 영혼의 힘을 가졌으니까.

2015년 당신의 영혼에 기대를 걸겠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토토가'와 '가요대전'

기자수첩

전 효 진 <연예스포츠부 기자>

연말 가요시상식이 지루한 이유를 MBC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를 통해 알게 됐다. SBS '가요대전'을 향한 혹평은 음악과 공감의 문제에서 비롯했다.

"다시 볼 수 있어 감사했다." 27일 방송된 '토토가'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다. '토토가'는 90년대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콘셉트로 진정한 세대 통합을 이야기했다. 남성 듀오 터보, 김현정, 그룹 S.E.S가 1부 무대를 꾸몄다. 텔레비전을 쌓아 놓은 무대,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연출은 그 시절을 완벽히 재현했다. 무엇보다 출연진과 시청자를 감동시킨 '토토가'의 힘은 음악이었다.

방송을 보면서 가요계의 미래가 궁금해졌다. 20년 뒤 우리에게는 추억할 만한 가수가 얼마나 있을까? 90년대에는 모든 노래가 앨범으로 발매됐다. 그러나 디지털 음원 시장이 커짐에 따라 앨범은 수익 면에서 경쟁력을 잃었다. 이익을 내야 하는 업계가 싱글을 발매하는 건 당연하다. 싱글은 가수의 활동 주기를 줄여 신곡의 수를 늘리고 곁만 풍성해 보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앨범이 곡 순서에 따라 듣는 이의 이해를 돕고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다르다.

지난 21일 SBS '가요대전'이 총체적 난국이란 평을 받는 건 본질인 음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연결되면 어색한 싱글 곡들이 3시간 동안 끊임없이 들렸고 시청자는 숨이 찼다. 가수 없는 무대를 비추는 카메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열도라고 표현한 대본도 올 한해 가요계를 정리하는 '가요대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데 한몫 했다.

20년 후에도 '토토가'를 보고 싶다. 내년에는 소비되기 보단 간직하고 싶은 노래가 많이 발표되길 기대한다.

멋진 스타일에 실용성까지 '알짜배기 CUV'

헤드업 클러스터로 운전 편의성 높여
하이브리드 버금가는 경제성도 자랑

■ 푸조 2008

국내 수입차시장이 커지면서 세단에 집중되던 인기 모델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말 데뷔한 푸조 2008도 바로 그런 케이스다.

푸조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차는 유럽을 휩쓸고 있는 소형 크로스오버카(CUV)다. 2008은 차체 크기와 유형으로 보면 르노삼성 QM3(유럽에서는 르노 캡처)와 유사하다. QM3와 비교하면 차체 길이는 35mm 길고 너비는 40mm 좁고, 높이는 10mm 낮다. 실내공간을 좌우하는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2008이 QM3보다 65mm가 짧다. 유럽에서의 경쟁차로는 르노 캡처 외에 오펠 모카(쉐보레 트랙스), 닛산 쥬크, 미니 컨트리맨 등이 있다.

2008의 외관에서 눈에 띄는 건 곡선으로 이뤄진 루프 라인이다. 루프는 다른 차와 같이 평평한 타입이지만, 사이드 패널이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높아지면서 마치 루프가 곡선으로 이뤄진 듯한 착시효과를 준다. 게다가 QM3에 없는 루프랙을 갖춰 SUV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민 실내는 더욱 놀랍다. '헤드업 클러스터'로 불리는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운전자의 눈높이와 가까워 시선 이동을 줄였으며, 지름을 줄인 스티어링 휠은 마치 게임기를 조작하는 것처럼 운전을 재밌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지름이 줄어들면 조작하는 데 더 큰 힘이 필요하지만, 2008은 그런 문제가 없다.

깔끔한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통합 터치스크린 덕분이다. 라디오와 블루투스, USB 등의 기능은 7인치 모니터를 터치해 조작토록해 스위치가 대폭 줄어들었다.

▲한 줄 평가: 실용성과 디자인에서 흠 잡을 게 없다.
▲평점: ★★★★☆(평점은 별 다섯 개 만점. ☆는 1/2)

한 가지 문제점은 블루투스 기능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핸드폰과 연결되는 것도 시간이 걸린뿐더러, 음악을 듣고자 할 때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이는 푸조와 시트로엥의 여러 모델들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다. 수입사인 한불모터스가 심도 있게 점검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08은 1560cc 디젤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92마력, 최대토크 23.5kg·m를 낸다. QM3가 1461cc 디젤 엔진으로 90마력의 최고출력과 22.4kg·m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2008의 성능이 조금 앞선다. 2008의 공차중량은 1250kg으로 QM3(1300kg)보다 가볍기 때문에 실제 주행성능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두 차의 주행성능 차이는 변속기에서도 나타난다. 2008은 푸조의 전자제어 MCP 변속기를 채택했고, QM3는 독일 게트락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얹고 있다. 이들 변속기는 수동변속기 메커니즘에 자동변속기의 편리함을 접목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변속 감각만 보면 게트락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낫다. 푸조의 MCP도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변속될 때의 울컥거림은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 물론 변속되기 전에 가속 페달을 살짝 떼거나 수동 모드로 조작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익숙해지려면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점을 감수한다면 MCP 변속기의 환상적인 연비를 경험할 수 있다. 2008은 도심 16.2km/ℓ, 고속도로 19.2km/ℓ, 복합 17.4km/ℓ의 연비로 웬만한 하이브리드카만큼이나 좋은 연비를 보여준다. QM3의 복합 연비 18.5km/ℓ(도심 17.0km/ℓ, 고속도로 20.6km/ℓ)와도 막상막하다.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4:6의 비율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 2008은 15.0km/ℓ의 연비를 기록했다.

2008은 한불모터스가 푸조 브랜드를 한국에 도입한 이후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모델이다. 초기 도입물량이 부족할까봐 송승철 사장이 프랑스로 날아가 추가 물량을 확보해왔을 정도. 2650만~3150만원의 비교적 낮은 가격과 알찬 상품성, 뛰어난 경제성을 인정받으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QM3(2280만~2495만원)에 비하면 약간 가격이 높지만, QM3에는 2008에 있는 커튼 에어백이 없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현대차 "위시볼로 새년 소망을"

현대자동차와 고객이 함께하는 즐겁고 희망찬 새해맞이 대형 이벤트가 강남역에서 또 한 번 열린다.

현대차는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강남역 일대에서 ▲대형 풍선에 고객들의 새해 소망을 적어 띄우는 '위시볼(Wish Ball)' 행사를 비롯해 ▲유명가수 공연 ▲카운트다운 세레모니 등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5'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5'는 고객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겠다는 현대차의 '리브 브릴리언트(live brilliant)' 캠페인의 일환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의 희망과 감동을 고객과 함께 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11년 이래 4회째 이어져 오는 새해맞이 행사다.

현대차는 27일부터 서울시 강남역 '유스트리트(U-street)' 일대에 위시볼 50개를 설치, 이색적인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아반떼 MD	–	1,130	1,150	1,220	1,390
	그랜저 HG	–	–	2,270	2,440	2,770
쉐보레	스파크	–	510	650	700	890
	올란도	–	–	1,510	1,570	1,840
기아	뉴카니발	–	1,290	1,320	1,490	2,300
현대	싼타페 DM	–	–	1,920	2,570	2,690
폭스바겐	티구안	–	2,480	2,620	2,940	3,300
BMW	3시리즈	–	2,330	2,710	3,150	3,850
	5시리즈	–	3,350	3,620	4,210	4,650
벤츠	C클래스	–	2,790	2,960	3,240	3,720
	E클래스	–	3,270	3,910	4,150	4,830

정보제공 :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자동차기자협회, '2015 올해의 차' 후보 발표

▲올해의 차: 현대 쏘나타, 현대 그랜저 디젤, 현대 아슬란, 기아 올 뉴 쏘렌토, 기아 올 뉴 카니발, 한국GM 쉐보레 말리부 디젤, 르노삼성 QM3,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메르세데스 벤츠 GLA, 인피니티 Q50, 토요타 뉴 캠리, 링컨 MKC, 닛산 캐시카이, 지프 올 뉴 체로키, 아우디 A3, 포르쉐 마칸, 볼보 S60 D2
▲디자인 부문: 르노삼성 QM3, 렉서스 NX300h, 재규어 F타입 쿠페, 크라이슬러 지프 올 뉴 체로키, 포르쉐 마칸, BMW i3
▲퍼포먼스: 메르세데스 벤츠 S63 AMG, 아우디 RS7, 재규어 F타입 쿠페, 포르쉐 911 GT3, BMW M3
▲그린카 : 기아차 쏘울 EV, 닛산 리프, 렉서스 NX300h, 푸조 2008, BMW i3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올해 출시한 50여개의 차종 가운데 17개 차종을 '2015 올해의 차' 후보로 공식 결정했다.

사단법인한국자동차기자협회(회장 최우석)는 지난 24일 올해의 차 선발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17개 차종을 '2015 올해의 차' 후보로 선정했다. 또한 디자인, 그린카, 퍼포먼스 부문에서도 각 5개 차종씩 후보 차종을 확정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공식후보에 오른 차종을 대상으로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위원장 오종훈)의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 차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한국자동차 기자협회 회원사별 1명씩 모두 37명으로 구성된다. 선정위원회는 평가대상 차종의 ▲가격대비 가치(종체적인 상품성) ▲성능(차급을 고려한 성능) ▲편의성과 편의사양 ▲디자인·감성 ▲안전성 ▲연료효율성 등을 평가해 올해의 차를 선정하게 된다.

평가과정에는 시장조사업체인 프롬리서치(대표 박경림)가 참여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1월 중 각 부문별 최종 후보 3개 차종을 발표한 뒤 1월 21일경 최종 수상 차종을 발표하고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올해의 차는 올해 출시한 신차 중 연식변경, 상품성 개선모델을 제외한 페이스 리프트 이상 신차 중 연간 판매대수 300대 이상인 모델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그린카, 퍼포먼스, 디자인 부문은 판매대수에 상관없이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의 차 후보에는 1차로 15개 차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평가 결과 동점을 받은 3개 차종이 있어 전체 후보는 17개 차종으로 늘어났다. 디자인 부문에서도 6개 차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스테이크의 변화… '마블링 → 드라이 에이징'

숙성 통해 식감·풍미 느끼고 소화 잘돼 고객 갈수록 늘어

그동안 양식 고급 메뉴로 손꼽히는 스테이크를 즐길 때 많은 사람들이 '마블링'의 상태로 육류의 상태를 판가름 했다. 그러나 최근 외식 업체를 중심으로 고기를 공기 중에 노출한 상태에서 숙성시키는 '드라이 에이징' 방식을 활용한 스테이크를 잇따라 선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육류의 수분이 증발되는 대신 감칠맛 나는 아미노산이 생성돼 풍미는 향상되고 육질은 부드러워진다.

마블링이 보존되는 습식숙성육은 부드러운 기름 맛으로 먹지만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는 단백질에서 우러난 구수한 맛으로 먹는다. 이 방식으로 건조시킨 재료를 요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딱딱해진 표면을 제거해 내놓기 때문에 가격은 습식숙성 방식보다 50% 이상 비싸지게 된다.

지난 10월 블랙스미스가 '블랙스미스 by JULY'로 브랜드를 리뉴얼하고 선보인 '블백스미스 T본 스테이크'는 한우를 28일 동안 드라이 에이징 방법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더스테이크하우스 바이 빕스'도 지난 8월 '토마호크 립아이 스테이크'를 출시했다. 이 메뉴는 길다란 갈비뼈에 붙어있는 등심 부위를 약 5㎝ 두께로 두툼하게 잘라낸 후 뼈째 2주에서 3주간 드라이 에이징 한 것이 특징으로 오랜 기간 숙성을 통해 육즙의 농도가 진해져 뛰어난 식감과 특유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또 지난 8월 개점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프리미엄 식품관 '신세계 푸드마켓'의 경우 대형 숙성실이 갖춰진 드라이 에이징 코너를 별도 마련했다. 이 곳에선 드라이에이징 소고기를 스테이크용으로 판매하는데 최소 2주에서 8주까지 숙성을 거친 암소 1등급 이상의 고기를 판매한다. 오픈 하자마자 인기도 입증됐다. 첫 달 매출목표에 두 배에 가까운 170%를 달성했다고 한다.

드라이 에이징한 스테이크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 스테이크 전문점의 국내 시장 진출과 호텔 업계로의 관련 메뉴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이나 하와이에서 입소문 난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코리아'로 국내 시장 출범을 선포하고 청담동에 매장을 오픈했다. 창립자 울프강 즈바이너가 40여 년간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수석웨이터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선보인 뉴욕식 정통 스테이크 레스토랑으로 미국 내에서 상위 3%만 해당하는 최고급 소고기인 USDA 프라임 등급 블랙 앵거스 품종의 소고기를 사용하며 28일동안 드라이 에이징을 거친 소고기만이 제공된다.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포터하우스'.

또 올해 초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은 뉴욕 3대 스테이크하우스 중 하나인 'BLT스테이크'를 홍콩지점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인터네셔널 지점으로 드라이 에이징한 한우 채끝 등심과 미국 대표 육우 블랙 앵거스의 프라임 등급 채끝 등심을 먹을 수 있다. 이달 문을 연 더 리버사이드 호텔 라운지바 '6-1'에서는 뉴욕에서 초빙한 바텐더의 스페셜 칵테일과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선보였다.

드라이 에이징 한우를 한국식 구이로 판매하는 곳도 생겼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서동한우'는 한우를 독자 개발한 드라이 에이징 기법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송년 홈파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강강술래, 곰탕·육포·떡갈비 40% 할인
불고기·양념갈비 구성 송년세트도 선봬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집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는 알뜰 '홈파티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다양한 할인행사를 벌인다.

먼저 온라인쇼핑몰(www.sullai.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100% 한우 갈빗살만을 사용한 칠칠한우떡갈비(360g×3박스·3만9600원)와 흑임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나 함유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2만5200원)를

40% 할인 판매한다.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송년세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구이500g+돼지양념구이500g)도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6팩·18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박스(350㎖·10팩·20인분)는 3만78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50g·10봉)는 3만6000원에 각각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20마리)도 약 50% 할인된 6만4000원에 선보인다.

한편 회사는 온라인마케팅 및 상품 기획, 종합몰·오픈마켓 관리 등을 담당할 온라인쇼핑몰 팀장을 공개 채용한다.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klfds24@sullai.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영일기자

'완구'에 비중 두는 온라인몰

전문몰 오픈·카테고리 강화… 성장 여지 충분

온라인 유통업계가 완구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완구 시장은 1조원 대 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어 업계는 뛰어들 여지가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아동뿐만 아니라 최근 키덜트족과 같이 완구를 찾는 성인이 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다. 실제로 최근 1달 간 온라인 몰에서 완구 카테고리 매출은 두자릿수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쿠폰을 붙이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온라인 몰 이용이 늘고 있다"며 "최근 모바일로 구매자가 늘고 있는 것도 완구 카테고리 매출에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해 전문 몰을 오픈하는 한편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파크는 온라인 몰 중 가장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달부터 운영 중인 '아이토이즈'는 국내외 500여 개 브랜드의 250만여 종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이태리트루디·클레멘토니·갈토이즈 등의 브랜드 상품을 비롯해 키덜트 인기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구하라' 서비스를 실시해 해외 직접 구매나 구매 대행으로 구하기 힘든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동 코엑스몰에 오프라인 매장도 열었다.

현재 유아동 전문관 안에 완구 카테고리를 운영 중인 롯데닷컴은 내년 영실업 인기상품 브랜드관, 레고갤러리관 등 브랜드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G마켓은 상설 할인관 '토이G샵'을 통해 매주 인기 장난감 6개를 특가에 선보이고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할인관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 업체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장난감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한편 옥션은 피규어·RC카 등 키덜트 관련 상품 판매가 늘자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했다. '쿼드로터 드론 RC헬기' '레이싱용 초대형 RC카' 등 무선 조정 제품 이 외에 '레고 닌자고카이 손목시계' '베트맨 블랙 코스튬' 등 레고·피규어 제품을 판매 중이다.

가능성이 높은 완구 시장을 누가 선점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유통업계, '타임 세일' 관심 집중

높은 할인율 적용, 매출·홍보 효과 일석이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통업체들이 특정 시간대에 짧고 굵은 세일을 진행하는 일명 '타임 세일'을 통해 고객 발길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른바 '타임 마케팅'으로 불리며 백화점이나 마트 등 식품 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보편화 된 판매형태였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유사한 방식의 깜짝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기간이 짧은 만큼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매출 신장과 함께 해당 브랜드나 업체를 알리는 홍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 이런 세일이 인기를 끌자 타임세일 정보만 모아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커피 유통 전문 브랜드 어라운지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최대 커피 할인 축제인 '어라운지 창고세일'(사진)을 벌였다. 이 세일은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진행됐다. 홈카페족에게 인기있는 브랜드 커피 머신·용품·원두 등을 엄선해 최대 90% 할인 판매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소셜커머스나 온라인 마켓에선 정기적으로 타임 세일을 벌여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업계의 타임 세일이 관심을 끌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앱도 등장했다. '타임세일 앱'이라는 이름의 이 앱은 인터넷 쇼핑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 정보와 할인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사이트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제공받을 수 있는 타임세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해줘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영일기자

노스페이스 다운·부츠로 '따뜻한 겨울'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등 올해 각종 평가 1위 석권
다운·부띠부츠와 함께 신소재 'VX 재킷' 좋은 반응

아웃도어브랜드 노스페이스는 최근 브랜드 가치 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14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의류패션 업계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대한민국 브랜드스타,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에서도 각각 아웃도어 부문 1위에 오르며 업계 최고의 브랜드임을 증명했다.

노스페이스가 이처럼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웃도어 브랜드로서의 뚜렷한 철학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는 데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기술력에 트렌디한 컬러와 디자인을 더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전 세대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제품은 다운재킷이다. 특히 남성용 '클라우스 다운 파카'와 '테론 다운 파카', 여성용 '칼리아 다운 코트', 남녀공용인 '스펙트럼 다운 재킷'이 인기를 끌고 있다.

노스페이스 다운 제품은 최고급 구스다운과 자체 개발한 발열안감 '프로히트(PROHEAT)', 방수원단 '하이벤트(HYVENT)'를 사용해 이중의 보온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핏이 살아있는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활동에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도심과 아웃도어 등 어디에서나 착용할 수 있다고 노스페이스 측은 설명했다.

올해 처음 선보인 'VX 재킷'은 노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혁신적 보온소재 'VX를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이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구스다운급의 보온력을 갖추고 있고 물세탁까지 가능해 실용적이다. 또한 신체 컨디션 유지·습도조절 기능도 탁월해 겨울철 아웃도어 활동 시 급격한 온도변화와 추위에도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대표선수단인 팀코리아 선수들의 야외 훈련에도 사용되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제품이다.

다운부츠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노스페이스의 '부띠'는 최고급 구스 다운을 충전재로 사용해 가볍고 따뜻한 것이 특징이다. 아이스 픽을 적용한 아웃솔(겉창)과 충격흡수 기능이 있는 중창으로 보행의 안전성을 높였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상 생활은 물론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하다.

부띠는 ▲무릎까지 오는 하이컷 기장의 14 우먼 부띠 하이 ▲종아리를 감싸주는 하프컷 기장의 14 우먼 부띠와 14 맨 부띠 ▲발목까지 오는 짧은 길이인 14 우먼 부띠 쇼트 등 다양한 길이로 구성됐다. 제품별로 패턴과 색상을 달리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게다가 남성용과 아동용이 함께 출시돼 패밀리 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난방비 ↓ 착한 보온용품 '눈길'

보온병·시트·실내용 텐트 등 '무전력 상품'

최근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온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온용품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CJ 몰에서는 12월 첫 주 온수매트 주문량이 지난해보다 265% 증가했다. 전기매트 보다 상대적으로 전기파 노출에 대한 염려가 적고 전기료를 줄일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카펫·커튼 군은 40% 매출이 신장했다.

무전력 보온 상품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면서 관심이 증가하자 생활용품 업계는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추위 속 체온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다.

써모스의 보온 스테인리스 포트 'THV-1500'(사진)는 제품 외벽과 내벽을 초고진공 단열 상태로 유지해 10시간 기준 72℃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강력한 보온 효력을 자랑한다.

창문에 붙여두는 것만으로도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온 시트도 인기를 얻고 있다.

락앤락은 올해 기존 제품에서 기능을 강화한 보온 시트를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 4㎜에서 5㎜로 더 두껍게 해 두터운 공기층을 형성해 창문 유리의 열전도를 막아 냉난방 효과를 높였다.

전기 없이 내부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실내용 텐트 역시 경제적인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이두젠 '따수미 방한 텐트'는 실내 온기를 유지하고 텐트 속의 데워진 공기가 밖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보온 용품이다. 공기 순환이 탁월한 실내용 원단을 사용해 내열은 유지하면서도 텐트 안의 수분과 습기를 배출해 쾌적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실내 공간을 확장한 디자인으로 실내 활동에 제약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가족의 소중함 일깨워요"

기업들 '가화만사성' 캠페인… 긍정적인 이미지·매출 증대 효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최근 고교생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0.8%가 가족 간 하루 평균 대화시간이 30분 이내라고 답했다.

바쁜 직장인들 역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마찬가지.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7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족식사 횟수는 일주일 평균 2.4회로 집계됐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가족 사랑의 날'을 실천 중인 모 기업의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사원 만족도·매출액이 급성장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례가 잇따르자 기업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스마트학생복은 여성가족부·이지웰가족복지재단과 함께 '수요일, 지금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캠페인 송 '패밀리'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선보였으며, 청소년들에게 '가족 사랑의 날'의 의미를 좀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패밀리 댄스 UCC 컨테스트'도 벌이고 있다. 또 스마트학생복 전속모델인 인기 아이돌 그룹 B1A4·GOT7과 함께하는 거리 캠페인에서는 '가족 사랑의 날' 실천 강령을 담은 홍보판촉물을 나눠줄 예정이다.

식품 기업 대상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전 직원이 정시퇴근하는 '가족사랑데이'를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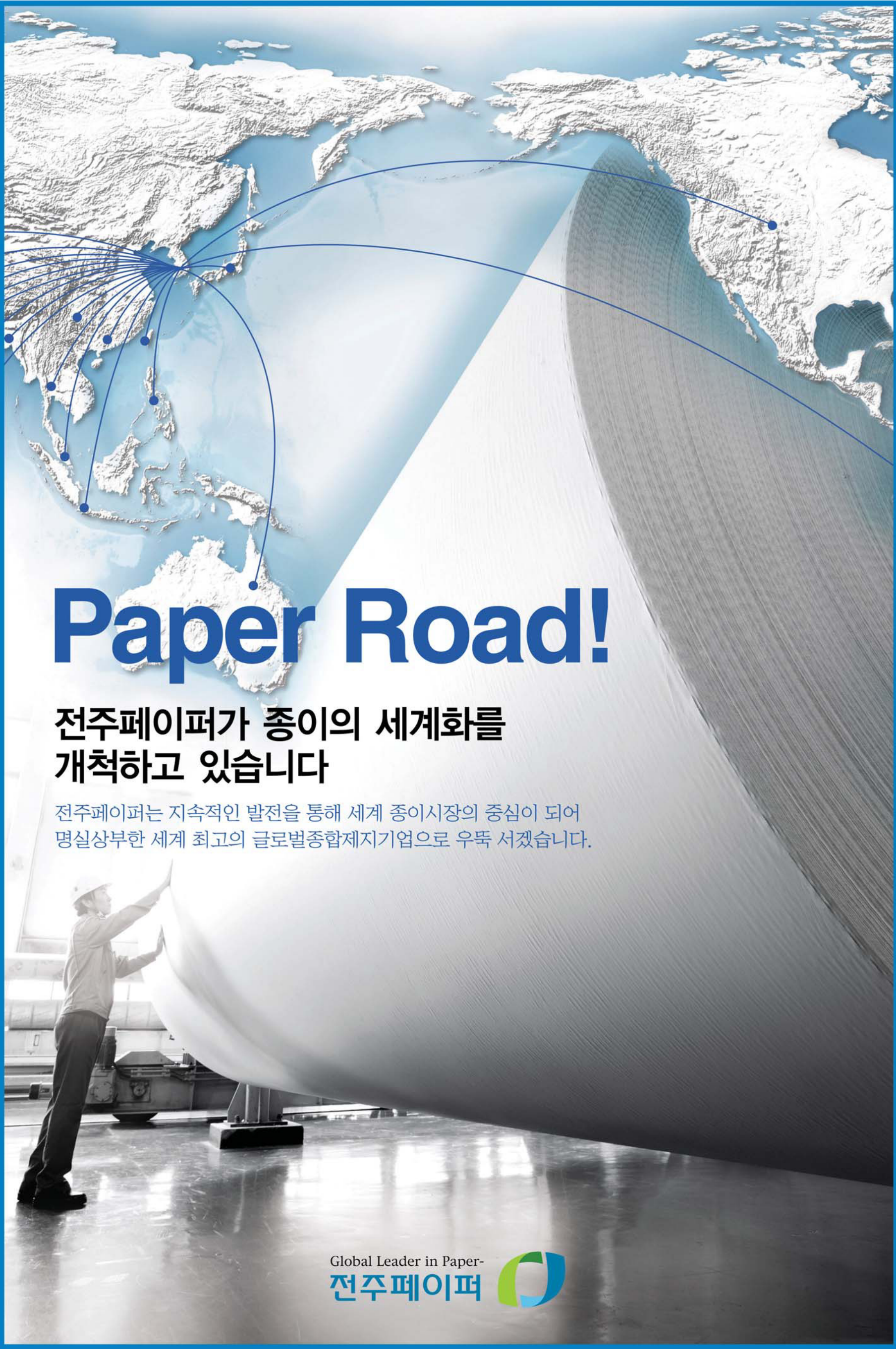
가족사랑데이 당일 퇴근시간인 5시30분이 되면 사무실의 모든 전원을 꺼버린다. 오후 7시 이전 강제퇴근 정책을 시행, 업무량이 많아도 이 시간 전까지는 무조건 퇴근해야 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같은 대상의 가족친화경영 제도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물론 창의력과 업무 집중도 향상으로 이어져 제도 시행 원년에 식품업계 1조 클럽에 재진입하는 등 매출 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사내 가족 화합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도 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부터 가족체험행사 일환으로 '엄마! 아빠! 어디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들은 부모의 일터를 방문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함께 쿠키를 만드는 등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화만사성 캠페인을 통해 가족간 소통이 원활해지면 나아가 사회의 화합까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새해 건강은 '검진' 부터

2015년 을미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건강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계획 수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폐경기를 앞둔 40~50대 여성들은 비타민D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타민D 결핍은 체내 칼슘과 인산 부족을 가져와 골다공증과 같은 뼈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3개월에 1회씩 검사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만약 비타민D 결핍 진단을 받았다면 비타민D 주사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눈 검사도 빠뜨릴 수 없다.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과 같은 안과 질환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말기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정기적으로 전문의를 찾아 눈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백내장은 조기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수술만 받으면 완치 가능한 질환으로 맨눈으로 판별할 수 없어 안과에서 검사를 통해 진단해야만 한다.

아울러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곤함과 무력감을 자주 느낀다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잠을 많이 자도 피로하고 운동을 해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또 추위를 잘 타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소화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갑상선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상진메디힐병원 원장은 "건강관리를 시작하기 전 검진을 통해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검사 후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이상한 마법학교' 흥행 행진

스타 마술사들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 선봬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작된 '이상한 마법학교' 두 번째 이야기가 화제다.

종합 에듀테인먼트 체험전으로 처음 열린 지난해 공연에서 8만5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압도적인 수치로 어린이 체험전 예매율 1위를 기록했던 이상한 마법학교는 지난해보다 넓어진 공간에서 더욱 새로운 콘텐츠로 흥행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현직 프로 마술사들과 마술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체험전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 그중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마술사가 직접 공연을 한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클로즈업 부문 2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 스타 마술사 임홍진과 영국과 일본 등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마술사 김민형이 그 주인공으로 이들은 SBS '스타킹'과 TV조선 '매직홀'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상한 마법학교에 오면 이들의 공연은 물론 마술을 통해 다양한 교육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다. 재미있는 놀이인 마술을 통해 탁월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상한 마법학교는 내년 2월 1일까지 이어지며 예매는 인터파크와 옥션, 예스24 등에서 가능하다. 문의: 1577-3363·www.icanmagic.com

/황재용기자

스키장 등 리조트 다양한 혜택 제공 이벤트 '봇물'

2014년 연말과 2015년 연초를 맞아 겨울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스키장 등 전국 리조트가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대명리조트에서 풍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31일까지 '할인&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계층별로 리프트권과 렌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특히 학생과 교직원, 공무원들은 최고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스키월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동반인과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스키월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인&조이 이벤트 시즌2를 전개할 계획이다.

대명리조트 거제는 마리나베이 특별 운항 프로그램 'Moon 세일링'을 선보인다. 달빛을 따라 떠나는 낭만 가득한 요트여행으로 풍등 날리기 체험 등 색다른 재미를 주는 놀거리도 풍성하다. 또 내년 1월 1일에는 선상에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신년 해맞이 요트투어'도 이어진다.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송년 이벤트를 만끽할 수 있다. 신나는 음악과 디제잉쇼가 축제 분위기를 돋우며 유명 인디 뮤지션들이 8090 음악을 재해석한 인디밴드 콘서트 등으로 꾸며지는 '굿바이 2014 휘닉스파크 PPP 아날로그 뮤직 파티'가 열린다. 스키강사와 스키 패트롤들이 슬로프를 내려오며 2015년 새해를 수놓는 횃불스키 퍼포먼스와 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축제도 빼놓을 수 없으며 매직쇼와 포토 이벤트, 럭키 드로우 등 다양한 현장 참여 이벤트에서는 푸짐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

아울러 휘닉스파크는 2015년 1월 1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몽블랑 정상으로 올라가는 곤돌라 탑승권과 떡만둣국을 즐길 수 있는 '해돋이 패키지' 상품을 판매 중이다. 게다가 제주 휘닉스아일랜드도 새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송년&신년 행사를 마련했다.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사진)는 스파라스파(Spa la Spa)에서 특별 애프터 스키 프로그램인 '화이트시즌 스페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스키나 보드를 즐긴 후 긴장된 하체 근육과 찬 바람에 약해진 피부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우나는 물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컬러&라이트 휴식 프로그램 등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카운트다운 파티' 어디가 좋을까?

특급호텔, 올해 마지막 추억 남길 이벤트 홍보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월의 흔적을 함께 하고 싶은 벗들 혹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연인과 기억에 남을 특별한 송년의 밤을 보내고 싶다면 특급호텔에서 준비한 다양한 행사를 추천한다.

먼저 밀레니엄 서울힐튼은 31일 영국풍의 바 오크룸에서 '송년 카운트다운 파티'를 준비한다. 송년 특별 카베리 뷔페를 맛볼 수 있으며 카운트다운 파티의 즐거움과 흥분을 더할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다양한 종류의 주류와 안주를 무제한으로 만끽할 수 있는 '페스티브 시즌 원더 아워(Festive Season Wonder hour)'를 선보인다. 롯데호텔서울은 더 라운지에서 감각적인 재즈 공연과 경품 추첨 등으로 구성된 '2014 이어 엔드 라운지 파티(Year End Lounge Party)'를 마련했다.

더 플라자에서는 카운트다운 특별 메뉴와 럭키 드로우 등의 이벤트가 가득한 '카운트다운 2015'를 만날 수 있으며,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는 무제한 와인·생맥주, 그리고 특별한 공연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도 화려한 조명과 맛깔나는 음식, 밴드 공연 등으로 올해 연말 파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2014년 마지막 날을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이어 엔드(Year-End) 파티'를 진행한다.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선 송년 모임과 파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연말 송년 파티'를 준비했다. 트레비 라운지와 스카이 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에서 파티가 가능하며 호텔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모션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쉐라톤 인천 호텔의 부티크 바 Bb에서는 다양한 칵테일과 와인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로맨틱 카운트다운 파티'가 열린다. 국내 최고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인 63빌딩 워킹온더클라우드(Walking On The Cloud)에서는 특별 코스요리와 선물이 주어지는 '로맨틱 이어 앤드 다이닝 패키지'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황재용기자

“운동 선수 역 꼭 해보고 싶어요”

SBS ‘모던파머’ 연변 처녀 역 **한 주 현**

“리액션 느려서 캐스팅 됐대요”
곽동연과 10살 차…“누나가 할게! 리드했죠”
“조각 같은 이목구비, 캐스팅에 방해되기도”

배우 한주현(27)은 27일 종영한 SBS 주말극 ‘모던파머’에서 앞머리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등장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그는 작품에서 조선족 불법체류자 송화란 역을 맡았다.

단속이 뜨면 도망쳐야 하는 그는 한기준(곽동연)과 풋풋하지만 가슴 한 켠이 시린 사랑을 했다. 캐릭터를 잘 살리지 못해 촬영이 끝난 뒤 많이 울었다는 한주현은 ‘모던파머’를 통해 “혼자만의 싸움이 끝났을 때 얻는 게 많다”는 점을 배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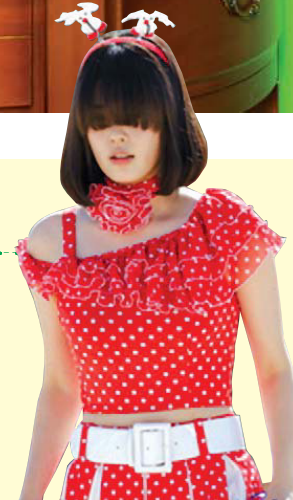
“‘모던파머’ 오디션에 참가했어요. 감독님이 제게 송화란 역을 소개해줬죠. 저는 스스로 이국적인 외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변 느낌이 있냐’고 직접 물었죠. 저는 말하기보다는 리액션을 주로 하는 편인데 반응이 느려요. 이야기를 다 듣고 반응하죠. 감독님이 그 모습을 보고 캐스팅했어요. 소속사에서는 연변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말투와 행동을 배웠죠. 실제 연변 사람들도 행동이 한 박자씩 느리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화란은 한기준보다 한 살 어리다. 그러나 실제 한주현과 곽동연은 10살 차이가 나는 누나와 동생이다. 한주현은 “걱정됐다”고 곽동연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감독님이 나이 차이를 말해 줬을 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곽동연은 연기할 때 정말 성숙한 배우죠. 그런 친구를 처음 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한기준과의 데이트였어요. 편안했고 역할과 분위기에 스며있는 기분을 처음 느꼈어요. 이전에는 (화면에) 잘 나오기 위해 연기했는데 이번에는 교감하며 연기하니까 감정이 녹아나더라고요. 실제 연애 스타일은 송화란처럼 수줍어하지 않아요. 곽동연과 연기할 때도 ‘가만히 있어, 누나가 할게’라고 리드했죠. (웃음)”

한주현에게 시청자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건 송화란이 긴 앞머리를 자르고 변신했을 때부터다.

“작가가 변신하기 전에는 웃지 말라고 하셨어요. 평소에 잘 웃는 편이라 정말 힘들었죠. 앞머리를 자른 뒤에는 댓글을 보면서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촬영할 때는 그 공간에만 있으니까 모르거든요. 현장에서는 모든 출연진이 송화란의 변신을 도와줬어요. 이하늬는 볼, 입술 화장을 해줬고 남성 출연진도 ‘더 예쁘게 해’라고 말했죠.”

송화란은 뱀을 잡고 약초를 캐며 ‘모던파머’ 속 달인으로 활약했다.

“첫 촬영이 뱀을 잡는 거였어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무서운 게 중요하지 않았죠. 촬영 하다 뱀에게 살짝 물려서 병원에 가 주사를 맞았어요. 꿩을 잡고 연기할 때는 마음이 이상했어요. 죽은 꿩을 잡고 있으니까 징그럽더라고요.”

한주현은 데뷔 초 배우 한가인을 닮아 화제가 됐다. 그러나 2007년 영화 ‘기담’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한 그는 꾸준한 작품 활동에도 대표작을 남기지 못했다.

“당시 영화사에서 ‘한가인 닮은 꼴’로 이슈를 만들었어요. 한가인을 닮았다는 말은 학창 시절에도 들었어요.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그때는 배우를 직업으로 할 줄 몰랐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였지만 ‘한주현’이라는 사람만 놓고 보면 장점이 아닌 듯해요.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조각 같은 이목구비가 오히려 캐스팅에 방해가 된 경우도 있다.

“미팅을 하면 제작진이 사진이랑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해요. 부잣집 막내딸 이미지로 저를 만났는데 함께 대화를 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속사에서 추천해주는 역할도 예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배우로서의) 제 위치는 하고 싶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제작진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자신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엉뚱하고 밝은 캐릭터, 사연 있는 악역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늘 꿈꾸는 역은 운동 선수예요. 오디션을 볼 기회조차 없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얻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요. 저 운동 신경 좋은 편입니다. (웃음)”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사진/한준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김아람

5000여 팬 '마왕'을 그리워하다

신해철 추모공연, 넥스트 유나이티드·동료가수 함께해
부인 윤원희 씨 눈물…"그의 음악은 계속 울려 퍼질 것"

2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넥스트 유나이티드 콘서트-민물장어의 꿈'. /연합뉴스

지난 10월 27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의 추모 공연이 27일 오후 7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당초 6년 만에 재결성한 넥스트 유나이티드(N.EX.T Utd.)의 공연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신해철의 사망으로 공연은 고인의 빈소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 '민물장어의 꿈'이 부제로 붙은 추모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는 생전에 그를 사랑했던 뮤지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팬클럽 철기군을 비롯한 5000여 명의 관객이 객석을 채웠으며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와 두 자녀도 함께 했다.

윤원희 씨는 이날 공연 내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공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어린 아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아빠의 노래를 따라불러 안타까움을 더했다. 팬도 고인의 영상이 흐를 때마다 눈물을 보였다. 특히 엔딩곡으로 '민물장어의 꿈'이 나오자 노래를 합창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이날 관객들은 슬픔에만 갇혀있지 않았다. 스탠딩석 팬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함성을 질렀다. 크래쉬의 안흥찬이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를 부를 때는 스탠딩석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뛰어올라 록페스티벌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넥스트 유나이티드의 트윈 보컬인 이현섭이 "오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며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그런데 오늘은 마음껏 웃고 뛰고 울다 가시면 될 것 같다. 그게 해철이 형도 원하는 바일 것 같다"고 말하자 객석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됐다. 이현섭과 정기송 등 넥스트 유나이티드와 역대 넥스트 출신 연주자들, 신성우·김원준·김진표·이수·김성면 등 스페셜 보컬들이 3팀으로 나뉘어 무대를 꾸몄다.

마지막 무대는 넥스트 유나이티드가 장식했다. 이현섭은 "공연 때 형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는 절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철이 형 노래가 들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나와 여러분의 가슴에 신해철이 살아있는 한 넥스트의 음악은 계속 울려퍼질 것이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연장 밖에서 팬클럽은 의료사고 논란이 있었던 신해철을 위해 '의료 사고 입증 제도 개선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공연 수익금은 신해철의 두 자녀를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계획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세븐 전역…"성실히 살 것"

가수 세븐(사진)이 1년 21개월 만에 전역했다.

세븐은 28일 경기도 포천 8사단에서 전역식을 가졌다. 이날 전역식에는 국내외 팬 100여명이 자리해 세븐의 전역을 환영했다.

전역식을 마친 세븐은 오전 9시20분경 위병소를 나섰다. 그는 경례를 한 뒤 "군 생활 동안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하고 잘못했던 일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죄송하다. 당시에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잘못했던 부분들 외에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 많이 힘들었지만 저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세븐은 "8사단에 1년 반 동안 있었다. 큰 일을 겪고 난 뒤 쉽지만은 않았다. 끝까지 믿어준 부대 간부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븐은 지난해 3월 19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를 통해 입대했다. 135기보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은 뒤 곧바로 국방부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군 복무 중 숙소 무단이탈과 안마 시술소에 출입한 혐의가 적용돼 영창 10일의 처분을 받아 당초 예정됐던 18일보다 10일 늦게 전역하게 됐다. 세븐은 연예병사 제도 폐지 이후 지난해 8월부터 8사단에 재배치돼 소총병으로 군 생활을 이어왔다.

/장병호기자

록과 소울의 완벽한 조합

YB·바비킴 합동콘서트 '동시상영' 큰 호응

상이한 두 장르가 한 무대에 동시에 올려지면 어떤 모습일까? 27일 서울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YB·바비킴의 합동 콘서트 '동시상영'은 이 물음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했다.

'국가대표' 록밴드 YB와 '소울 음악의 대부' 바비킴은 이미 방송과 앨범을 통해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화를 이뤘다. 이날 두 팀은 록과 소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개별 무대와 두 장르가 한 곡에 녹아든 합동 무대를 적절히 섞으며 시간 분배와 장르적인 면에서 모두 균형을 맞췄다.

공연은 바비킴의 감수성 짙은 목소리로 시작됐다. 그는 오랜 무명시절을 벗어나게 해준 히트곡 '고래의 꿈'부터 최근 발표한 '사과' 등 그의 애절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세션의 잔잔한 연주가 깔리고 바비킴은 '렛 미 세이 굿바이'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때 무대 뒤에서 윤도현이 천천히 걸어나와 자연스럽게 화음을 만들어냈다. 노래를 마친 윤도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무대 뒤로 사라져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바비킴은 이날 YB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도 호흡을 맞췄다. '사과' 무대에서는 그의 아버지 김영근 씨가 직접 등장해 트럼펫 연주를 들려줬다. 또 바비킴 소속 힙합그룹 부가킹즈의 멤버 간디가 깜짝 등장해 신나는 힙합 비트로 객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열기가 채 식기도 전 YB의 무대가 바로 시작됐다. YB는 '나는 나비' '담배가게 아가씨' '잊을게' 등 강렬한 록 사운드로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관객들을 기립하게 만들었다. 이어 '너를 보내고' '흰수염고래' '사랑TWO' '사랑했나봐' 등 감성적인 무대로 완급 조절을 했다.

YB의 능숙한 무대 매너는 신곡 '매드 러브(MAD LOVE)'에서 더욱 빛났다. 이날 윤도현은 "오늘 처음 공개하는 노래지만 다 따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래가 중반부에 접어들자 그의 말대로 객석에선 후렴구 "유 아 마이 매드 러브, 유 아 마이 배드 럭"이 터져 나왔다. 공연은 절정을 향해 달려갔고 바비킴의 '한잔더'와 YB의 '타잔'이 합쳐진 무대가 펼쳐지자 소울팬도 록 팬도 모두 하나가 됐다. 한껏 달궈진 공연의 연기는 쉽게 식지 않았고 앙코르 무대만 무려 30분가량 더 이어지며 '연장상영'됐다.

/김지민기자 langkim@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무한도전’ 토토가, 제대로 터졌다

1990년대 가수 한 자리에…섬세한 무대 연출·자막으로 시청률 견인

김현정

MBC ‘무한도전’의 특별기획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이하 ‘토토가’)가 시청자를 제대로 사로잡았다.

27일 오후 방송된 ‘무한도전’ 410회는 ‘토토가’의 첫 번째 무대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토토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10개 팀 중 터보·김현정·S.E.S 세 팀의 무대만 공개됐지만 시청자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방송은 최근 1년 간 방송된 ‘무한도전’ 에피소드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8일 시청률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기준 19.8%를 나타냈다.

음원 차트 역시 ‘토토가’가 점령했다. 방송 직후 터보의 ‘러브 이즈(Love Is)’, 김현정의 ‘멍’, S.E.S의 ‘아임 유어 걸(I'm Your Girl)’ 등은 멜론·소리바다·지니뮤직 등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러브 이즈’는 방송 이튿날인 28일 정오까지 멜론과 소리바다 등에서 1위를 지키며 명곡의 위엄을 뽐냈다.

한국 대중음악의 황금기라 불렸던 1990년대 가수들을 한 자리에 모은 ‘토토가’는 섭외 과정부터 숱한 화제를 뿌렸다.

지난달 8일 방송된 ‘토토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서태지, 쿨 이재훈, 솔리드 김조한, 소찬휘, 김현정, 핑클 옥주현, S.E.S 바다, H.O.T 강타, 젝스키스 장수원·김재덕 등이 출연했다. 이날 노래방 역량 평가에서 가수들은 각자의 히트곡을 부르며 시청자들을 추억 속으로 이끌었다. 지난 20일 ‘토토가’ 2편에서는 김건모·조성모·지누션·이정현·터보 등이 노래방 역량평가를 치렀다.

2회에 걸친 ‘토토가’ 섭외과정은 시청자들을 추억 속으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방청 신청에만 약 7만5000명이 몰렸다. 지난 18일 일산 MBC 드림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토토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990년대로 떠난 듯했다. 출연 가수들은 물론 방청객도 1990년대 유행했던 옷을 입고 추억 여행에 동참했다.

1990년대에 대한 향수, 일명 ‘백 투 더 나인티스(Back to the 90's)’는 이미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7’를 시작으로 후속편 ‘응답하라 1994’, 엠넷 ‘근대가요사 방자전’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1990년대 음악은 추억을 상기시키는 소품들 중 하나였고 ‘근대가요사 방자전’은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채 종영했다.

하지만 ‘토토가’는 1990년대 히트곡을 전면에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TV를 그대로 옮기는 데 충실했다. 당시 인기스타 이본을 MC로 세운 것부터 투박한 세트와 촌스러운 자막까지 섬세한 연출이 돋보였다. 시청자뿐만 아니라 출연진 역시 이 날 자리에 큰 감동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 ‘토토가’의 열기는 안방극장에도 그대로 전달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토토가’ 시즌제 요청과 DVD 출시 문의 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토토가’ 두 번째 무대는 내년 1월 3일 ‘무한도전’ 411회에서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건모·쿨·지누션·엄정화·소찬휘·조성모·이정현 등이 출연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유재석 9년 만에 KBS ‘연예대상’

최고 프로그램상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인 유재석이 9년 만에 KBS ‘연예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14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유재석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상 후보에는 ‘나는 남자다’ ‘해피투게더’의 유재석과 함께 ‘우리동네 예체능’의 강호동, ‘1박2일’ ‘개그콘서트’의 김준호, ‘풀하우스’의 이경규, ‘1박2일’의 차태현 등이 후보에 올랐다.

유재석은 10년 넘게 ‘해피투게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KBS ‘연예대상’에서는 지난 2005년 수상 이후 9년 동안 무관에 그쳤다.

대상을 수상한 뒤 유재석은 “오늘 정말 상을 받을 줄 몰랐다. 제작진과 함께 ‘해피투게더’와 ‘나는 남자다’를 열심히 했지만 다른 기라성 같은 프로그램에 비하면 이 상을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아프지만 함께 열심히 한 동료가 떠나갈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나는 남자다’를 함께 진행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재석은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박명수를 언급하며 “어디선가 디제잉 하고 있을 명수 형, 나 대상 받았어”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날 KBS ‘연예대상’에서 최고 프로그램상은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대희·김영희(코미디)와 추성훈·김지민(쇼오락)에게 돌아갔다. 허안나·조윤호(코미디), 김신영·데프콘(쇼오락)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국제시장’ ‘기술자들’ 쌍끌이 흥행

연말 극장가 점령…‘국제시장’ 400만·‘기술자들’ 100만 돌파

영화 ‘국제시장’과 ‘기술자들’이 연말 쌍끌이 흥행을 이끌고 있다.

지난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개봉 이틀째인 18일부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고 있다. 27일 토요일 하루 동안에만 54만1288명의 관객을 모으는 기염을 토했다. 스크린 수도 941개로 압도적이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낸 ‘국제시장’은 중장년층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28일 오전 10시30분 기준으로 누적 관객수는 400만779명을 기록했다. 1000만 영화인 ‘7번방의 선물’과 동일한 흥행 속도다.

지난 24일 개봉한 ‘기술자들’은 김우빈·이현우 등 청춘스타를 내세운 범죄 오락영화로 20~30대 관객을 공략하고 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기술자들’은 27일 하루 동안에도 25만4451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118만4092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워낭소리’의 기록을 뛰어넘어 역대 다큐멘터리 흥행 신기록을 세운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대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흥행 열풍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27일에는 19만2904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336만을 기록 중이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인터스텔라’는 순위가 꾸준히 하락해 박스오피스 9위까지 밀려났다.

/장병호기자

국제시장

기술자들

코르크와 와인 사이의 공간 얼리지(Ullage)

송년회의 막바지 기간이다. 동시에 신년회도 시작된다. 마트에서의 와인 할인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싼 가격에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그 동안 와인을 잘 사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었고 와인 마니아들은 기본적인 가이드 정도는 웬만큼 숙지하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얼리지(Ullage)를 활용한 구매 방법이다.

와인에서의 얼리지란 병을 막고 있는 코르크마개의 끝 부분과 병에 담긴 와인 사이에 생긴 공간을 말한다. 이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가 또 하나의 와인 선택 기준이 된다.

잘 알다시피 코르크로 막은 와인은 오랜 기간 숙성하면서 약간씩 증발하거나 코르크가 불량인 경우 와인이 마개 틈으로 새 나온다. 동시에 얼리지는 커진다. 명품 와인이 아닌 한 얼리지가 커지면 '불량이거나 상했을'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필자가 판단하는 기준은 코르크 하단부터 와인 윗부분까지의 폭을 1㎝, 3㎝, 5㎝ 등 3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와인 보관상태는 라벨의 손상 정도라든지 코르크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리지 역시 상대적인 비교 대상일 뿐이다.

1㎝ 내외의 얼리지라면 '어떤 와인이든 실패할 확률이 낮다'고 본다. 빈티지가 최근인 경우는 물론이고 약간 오래 묵은 것이라도 무난하다. 1~2년 정도 된 빈티지의 와인은 1㎝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부르고뉴나 메독 등 유명 산지의 품질 좋은 와인은 2㎝ 내외까지 큰 문제가 없다. 자연스러운 증발일 가능성이 높다. 단 병마개를 감고 있는 캡슐을 손으로 감고 비틀었을 때 잘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영(Young)한 와인의 경우 공간이 3㎝를 넘으면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 경우 다른 와인에 비해 할인율도 높아진다. 판매자도 품질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대형 마트에서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 의외의 성공을 거둘 경우도 많다. 얼리지가 5㎝를 넘는다면 오래 숙성한 고급 와인이 아닌 한 사지 않는 게 상책이라 하겠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6	3	
		3			6		2	
6	2		5		3			1
8		2				5		4
4		5				1		3
2			9		4		1	6
	4		1			8		
	9	7	3					

	6		8	3		5		1
				1		7	6	
9			6					4
5								
1		4				9		7
								5
2					1			9
	1	3		2				
8		7		6	5		1	

스도쿠 정답

5	1	4	7	2	9	6	3	8
7	8	3	4	1	6	9	2	5
6	2	9	5	8	3	7	4	1
8	7	2	6	3	1	5	9	4
9	3	1	8	4	5	2	6	7
4	6	5	2	9	7	1	8	3
2	5	8	9	7	4	3	1	6
3	4	6	1	5	2	8	7	9
1	9	7	3	6	8	4	5	2

7	6	2	8	3	4	5	9	1
4	3	8	5	1	9	7	6	2
9	5	1	6	7	2	3	8	4
5	7	9	1	4	3	8	2	6
1	8	4	2	5	6	9	3	7
3	2	6	7	9	8	1	4	5
2	4	5	3	8	1	6	7	9
6	1	3	9	2	7	4	5	8
8	9	7	4	6	5	2	1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입사 2년 직원, 업무파악 조차 못해 일정기간 기회 주고 안되면 정리를

Q **별사랑 남자 89년 10월 16일 양력 시는 모름**

입사한지 2년 된 직원인데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못하고 엉뚱한걸 물어보고 해서 직원들과도 화합이 잘 안됩니다. 일도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데 어찌 해야 할까요. 위에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만 처리 하려고 해서 회사에서도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직원입니다. 89년 양력 10월 16일생에 남자로 시는 모릅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상관(傷官)이라 하여 상사나 직장을 나타내는 관성 즉 질서 및 조직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기세가 강하여 좌충우돌 하는 구조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는 물론 생의 보람과 행복을 구가 하는 것이 직장인들이므로 직장생활이 원만해야하는데 2년이 지나도 업무파악조차 못하여 회사에 누를 끼치는 존재라고 한다면 결국 어느 날에는 자신들에게 생계위협까지도 오겠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포함한 실패한 인생을 남에게 전가하는 게 문제입니다. 내 운이 없다면 노력이라도 하거나 일을 충실히 하려는 보람도 없을 것인데 옴치고 뛸 수가 없는 상태이니 별다른 조언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귀문살(鬼門殺:귀신이 들락거리듯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이 작용하고 있으며 천간에 합(合)으로 직장생활이 원활치 못한 것이니 2015년 2월까지 기회를 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면 합의하에 사표를 권유하는 수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밀려나면 백수신세가 될 수 있으니 직장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보도록 해보십시오.

단순히 그 자체가 노동보다는 자연 현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알고 보면 그 속에 큰 의미가 있고 그 어떤 일에서든 열정적 창의적일 그 일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면 새롭게 출발 할 수 있다고 보니 주변에서 몇 달 동안이라도 일을 통해 자기성취가 가능하도록 힘써줘야 할 것입니다.

철쇄개금(鐵鎖開金)의 기운이 있는 구조는 생애에 갈등이나 번민, 배타, 구설수가 일반사람보다 강하게 따르고 있으니 이걸어 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니 인내를 갖고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29일 (음 11월 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희비가 교차하니 마음 비워라. **60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72년생** 잘 나갈 때 겸손하라. **84년생** 방심하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다.

49년생 머리 싸매 연구할 일 생긴다. **61년생** 고리타분한 이미지 바꿔보자. **73년생** 마음이 급하면 악수를 둔다. **85년생** 멋진 이성과 만나니 출근복장 신경 써라.

50년생 성실한 만큼 기쁨은 두 배~. **62년생** 좋은 일이 생겨서 이름이 떴다. **74년생** 무너지지 않게 마음을 돌보라. **86년생** 마음먹은 일 실행하면 이롭다.

51년생 배우자 덕담에 감동 받는다. **63년생** 거짓말이 참말이 되지 않도록~. **75년생** 도전하는 일에 머뭇하면 손해다. **87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야호~.

52년생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 지워라. **64년생** 망설이면 뜸들이던 밥 탄다. **76년생** 경쟁자의 혹평은 무시할 것. **88년생** 청색계통 옷이 행운 부른다.

53년생 참는 자에 복이 온다. **65년생** 작은 성과로 쓰린 속 달래라. **7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89년생** 하던 일에 속도를 더욱 더 내라.

42년생 들어오는 문서 꼭 잡아라. **54년생** 갈등은 대타협이 필요하다. **66년생** 무슨 일이 있어도 법은 지켜라. **78년생** 골치 아픈 일은 마침표 찍는다.

43년생 과보호 자식이 속 썩인다. **55년생** 못마땅하면 선 분명히 그어라. **67년생** 기다리던 사람은 오지 않는다. **79년생** 기회가 왔을 새판을 짜라.

44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6년생** 뿌린대로 거두는 날이다. **68년생** 결과도 중요하지만 품격도 생각하라. **80년생** 먹고 살만큼 돼야 꿈은 이뤄진다.

45년생 집안서 위상 강화된다. **57년생** 배우자의 마음부터 열어주라. **69년생** 새 출발 하려면 어제의 영광 잊어야 한다. **81년생** 주변의 칭찬에 으쓱~.

46년생 걱정한 일은 무사통과~. **58년생** 쉽지 않지만 임무는 마친다. **70년생** 약자라고 얕잡아 보지 마라. **82년생** 자신이 있다고 대충하면 탈이 난다.

47년생 가족과 함께 하면 좋다. **59년생** 주변의 의견을 따르면 편안~. **71년생** 희망이 있어 희생이 기껍다. **83년생** 현실을 본 다음 꿈을 생각할 것.

27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서 결전지 호주로 떠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호주 입성

아시안컵 앞두고 다음달 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이 열리는 호주에 입성했다. 대표팀은 28일 오전 호주 시드니에 도착해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 여정을 풀었다.

손흥민(레버쿠젠), 구자철·박주호(이상 마인츠), 차두리(FC서울), 남태희(레퀴야) 등 국내외 선수 21명이 이번 이동에 동행했다.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청용(볼턴)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경기 일정을 소화한 뒤 따로 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훈련장은 시드니 매쿼리 대학 운동장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 확인이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선수단에는 리그를 마치고 몇 주 동안 휴식한 선수와 지난 주말까지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섞여 있다. 제주도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와 불참한 선수도 혼재해 컨디션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

고강도의 체력과 전술 훈련을 소화하려면 컨디션을 균일하게 끌어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슈틸리케 감독은 "일단 몸 상태부터 지켜볼 것"이라며 " 무엇보다 선수들의 감각을 균일하게 맞추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A조에 편성됐다. 오만, 쿠웨이트, 호주와 차례로 맞붙는다. 다음달 4일 시드니 퍼텍경기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을 치른 뒤 오만과의 1차전에 나설 계획이다.

슈틸리케호는 오는 6일 시드니 캠프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캔버라로 이동한다. 캔버라에서 10일 오만, 13일 쿠웨이트와 대결하고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17일 호주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한국은 1956년 홍콩, 1960년 서울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뒤 한 차례도 아시안컵을 제패하지 못했다. 55년 묵은 한을 풀겠다는 의지가 뜨겁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아시아 '넘버3'이지만 이번에 그 순위를 바꾸겠다"며 "결승에 오르고 우승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미셸 위, LPGA 10대 뉴스 1위

US오픈 우승…'신인상' 리디아 고는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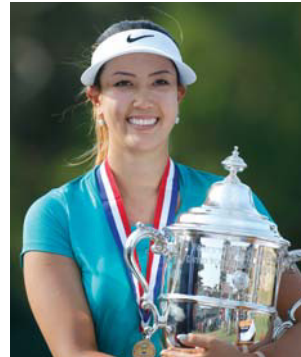
재미동포 미셸 위(25·나이키골프·사진)의 US여자오픈 골프대회 우승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 선정 2014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골프위크는 28일 올해 LPGA 투어를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정리해 발표했다.

1위에 오른 뉴스는 미셸 위의 US여자오픈 우승 소식이다. 골프위크는 "미셸 위가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순간은 그의 15년 여정을 함께 해온 사람에게는 특별한 장면이었다"고 평가했다.

어릴 때부터 '골프 신동'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미셸 위는 2009년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따냈고 올해 US여자오픈에서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다.

2위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1993년 벳시 킹 이후 21년 만에 평균 타수와 상금 1위, 올해의 선수상을 휩쓴 미국 선수가 됐다는 내용이 차지했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7)의 돌풍은 3위에 올랐다. 올해 L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리디아 고는 시즌 3승을 거뒀고 투어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우승 상금 50만 달러와 'CME 글로브 레이스' 1위 보너스 100만 달러를 더해 여자골프 사상 단일 대회 최다 상금 150만 달러를 손에 넣는 기쁨을 누렸다.

4위는 재미동포 크리스티나 김이 11월 로렌 오초아 인비테이셔널에서 9년 만에 우승 갈증을 푼 것이 차지했다. 5위는 올해 US여자오픈에서 11세 최연소로 출전한 루시 리의 이야기가 장식했다.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한 모 마틴(미국)의 18번 홀 이글,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의 2015년 골프 명예의 전당 헌액,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폴라 크리머(미국)의 23m 장거리 퍼트가 6~8위에 올랐다.

메이저 대회인 크라프트 나바스코 챔피언십에서 렉시 톰프슨(미국)과 미셸 위가 벌인 최종 라운드 맞대결, 53세 베테랑 줄리 잉크스터(미국)의 US오픈 공동 15위 선전 등이 올해 LPGA 투어 10대 뉴스 마지막 두 자리를 채웠다. /장병호기자

차두리 은퇴 안한다

FC서울과 1년 재계약…K리그 누벼

은퇴를 고민하던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차두리(34·FC서울·사진)가 내년에도 K리그 클래식을 누비게 됐다.

프로축구 서울은 차두리와 2015년 말까지 재계약하는데 성공했다고 27일 전했다.

차두리는 올 시즌 전성기가 다시 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가대표에도 발탁됐다. 이날 그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아시안컵이 열리는 호주로 떠났다.

차두리는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프로축구 선수생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용수 서울 감독이 은퇴를 말려 내년까지 현역 생활을 하게 됐다. 농익은 경기력과 리더십 때문에 그라운드 안팎에서 서울 구단에 기여할 부분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많은 축구 팬과 전문가들도 차두리가 전성기에 가까운 기량을 내년에도 선보이기를 고대하며 은퇴 검토를 아쉬워했다.

서울 구단은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뛰어난 기량과 리더십을 갖춘 베테랑과 재계약해 반갑기만 하다"고 밝혔다.

차두리는 독일,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다 2013년 서울 유니폼을 입고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 데뷔했다. 서울의 오른쪽 풀백을 거의 전담하면서 두 시즌 동안 K리그에서 58경기에 나와 5도움을 기록했다.

차두리는 타고난 체격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앞세운 강력한 수비,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오버래핑을 뽐내며 올해 K리그 클래식 베스트일레븐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장병호기자

英 눈독들이는 김신욱

BBC "프리미어리그서 관심 두고 있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신욱(26·울산 현대·사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BBC는 28일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일어날 가능성 있는 선수 이적 시나리오 50개를 제시하며 그 중 하나로 김신욱을 언급했다.

BBC는 "김신욱은 '한국의 피터 크라우치'"라고 평가하며 "올해 굉장히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현재 부상 때문에 이적이 1월에 성사될지 아니면 7월로 미뤄질지가 의문"이라고 예상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피터 크라우치는 키 200㎝의 장신으로 키가 196㎝인 김신욱처럼 공중 볼에 능한 스트라이커다.

김신욱은 올해 브라질 월드컵과 인천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그러나 오른쪽 종아리뼈 골절로 2015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안컵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다.

BBC는 김신욱에 대해 "이미 러시아 클럽팀인 스파르타크모스크바에서 입단 제의가 있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선수"라고 영국 진출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장병호기자

프로배구 전적 (28일)

팀	세트	세트	팀
삼성화재	3	1	우리카드
KGC인삼공사	2	3	GS칼텍스

프로농구 전적 (28일)

팀	1Q	2Q	3Q	4Q	합계
동부	21	24	14	19	**78**
LG	22	13	28	27	**90**
전자랜드	11	13	28	17	**69**
KT	25	17	23	15	**80**
국민은행	9	12	17	11	**49**
신한은행	11	14	13	19	**57**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